사회주의도덕과 법

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주체101 (2012)

차 례

1. 사회주의도덕

제1과.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적풍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언제나 인간을 먼저 보고 인민을 사랑하는것은 그의 천품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계시였으며 인민들에게 온갖 사랑과 크나큰 혜택을 다 돌려주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대홍단군종합농장을 찾으시였을 때에 있은 일이였습니다.

제대군인마을에 들리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가정을 찾으시고 부엌의 찬장과 방안의 이불장, 옷장을 하나하나 열어보시며 소금과 간장, 된장이 제대로 공급되는가고 다심하게 물어주시였습니다.

제대군인부부는 눈시울을 적시면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궁궐같은 새 집을 주시고 철따라 입을 옷들과 여러채의 이불, 지어 부엌세간과 텔레비죤수상기까지 보내주시여 아무 걱정없이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낯선 고장에 와서 새 살림을 폈는데 왜 불편한것이 없겠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가정적인 분위기가 방안에 가득히 차넘치였습니다.

이때 제대군인의 안해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한가지 소원이 있는데 태여날 아이이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올리였습니다.

참으로 엉뚱한 청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오늘 가정방문한 제대군인의 안해가 보통 걸작이 아니라고 가볍게 웃으시며 그는 마치 친정아버지가 온것 같이 내 손을 잡고 귀속말로 아이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였는데 제대군인안해의 간절한 부탁인것만큼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의미에서 아들을 낳으면 대홍이, 딸을 낳으면 홍단이라고 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이름없는 한 녀성이 드린 청을 잊지 않으시고 친히 태여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은 친아버지의 사랑에도 비길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이렇듯 자애로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김정일**대원수님을 온 나라 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한식솔이 되여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려왔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아픈 사연도 일일이 헤아리시고 다 풀어주시였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자기의 마음속 아픈 사연도 다 말하며 부모는 성의를 다하여 그것을 풀어줍니다.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믿고 부모는 자식을 귀중히 여기기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 한가정의 부모는 자식의 많고많은 소원을 다 풀어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말못하는 사연까지도 일일이 헤아려주고 그 어떤 마음의 그늘도 없이 사회에 당당하게 나서도록 이끌어주는 참다운 어버이는 인민의 령도자이십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흥남비료공장을 찾으시였을 때 있은 일이였습니다.

환영나온 군중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손저어 그를 부르시여 오래간만이라고 다정히 손을 잡아주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이 동무는 내가 잘 아는 동무라고 하시며 그가 이곳에 있는것이 믿어지지 않으시여 조용히 그동안의 사연을 물으시였습니다.

그는 한참만에야 그 누구에게도 말못하던 사연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죄다 말씀드렸습니다.

평양에 있는 어느 한 구분대에서 지휘관으로 복무하다가 내려와있는 그는 동생과 관련한 문제로 하여 마음속 고충을 안고있었습니다.

일찌기 군대에 입대하여 군사복무를 하고있던 그의 동생이 뜻밖에도 구분대에서 발생한 엄중한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된것입니다.

동생은 형에게 마지막으로 자기는 나쁜 놈들의 작간으로 억울한 루명을 쓰게 되였으니 그리 알아달라는 편지를 보내여왔으나 형으로서는 어디가서 해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문제로 하여 이곳에서 괴로운 마음으로 날과 날을 보내고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나는 동무의 동생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나 동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있다고 하시면서 나는 지금도 동무를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숙소에까지 그를 데리고가시여 그와 식사를 함께 나누시면서 억울한 루명을 썼다고 하소연한 동생의 편지내용과 동생의 이름, 나이, 주소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동생때문에 위축되거나 비관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부디 일을 잘하라고 위로해주시였습니다.

그후 또다시 함흥에 내려오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를 몸가까이 부르시고 동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나쁜 놈들이 제놈들의 죄행을 가리워보려고 동생에게 죄를 넘겨씌웠는데 이제는 동생문제가 해명되였으니 마음고생을 안해도 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 앞이라는것도 잊고 그만 책상에 엎드려 흐느껴울었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들형제는 다시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에 나란히 서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이렇듯 사람들의 마음속깊이에 맺힌 아픈 사연까지도 헤아려주고 풀어주시며 친부모도 다 주지 못하는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모두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텔레비죤중계탑이 키돋움하며 하늘높이 솟아나고있던 때였습니다.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량강도와 자강도의 산간지대에 흩어져있는 집이 몇세대밖에 없는 곳까지 많은 돈과 자재를 들여 중계탑을 세우겠는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인민을 위한 일에 수자타산을 앞세운적이 있는가고 하시면서 깊은 산골이라고 해서 텔레비죤을 보지 못하는 집이 있다면 그래 우리 마음이 편할것 같습니까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기계공 10명이 근무하는 중계탑을 세워서라도 산간지대의 마지막 한집까지 다 밝고 깨끗한 화면을 볼수 있게 하시려는 다심한 어버이의 사랑이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우리 인민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신 참다운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제2과. 오직 한가지 생각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가 되자면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야 합니다.》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뜨겁게 지니고 일생을 수령과 수령의 위업을 받들어 값있게 보내는 사람입니다.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는 자나깨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가까이에 있을 때나 멀리 떨어져있을 때나 언제나 자기 수령의 품을 그리워하고 수령의 령도밑에 수령의 위업을 더 잘 받들어나갈 생각으로 가슴 불태웁니다.

이것은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수령이 제일이고 수령만 계시면 언제나 승리한다는것을 굳게 믿는데로부터 스스로 지니게 되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고계시던 때의 일입니다.

꽃순이는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워온 동무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꽃순이의 그리움은 자나깨나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였습니다.

꽃순이는 아침밥을 먹자마자 호미와 삼태기를 들고 동구밖 언덕길로 향하였습니다. 언덕길에는 주먹만 한 돌들이 삐죽삐죽 드러나있었습니다.

꽃순이는 돌들을 캐서 삼태기에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안있어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꽃순이는 그것을 돌볼사이도 없이 돌을 캐냈습니다. 그의 머리속에는 한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참, 이상도 하지, 그게 정말일가?)

꽃순이는 어제 밤에 꾼 꿈이 정말 꿈이 아니였으면 하는 생각에 골똘하였습니다.

그 꿈은 정말 희한한 꿈이였습니다.

글쎄 마을에 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신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얀 사과꽃이 활짝 핀 과수원둔덕에 모여 설레이는 동네사람들, 그속을 헤집고 정신없이 달려가던 자기, 둘러선 사람들과 이야기하시며 환히 웃고계시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헤덤비며 뛰여오는 꽃순이를 보시자 마주 나오시며 천천히 걸어오라고, 그러다 넘어지겠다고 걱정해주시고 한품에 안아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꽃순이가 보고싶었다고 정답게 이야기하시며 집이 어디냐고 다정히 묻기까지 하시였습니다.

꽃순이는 아버님께 여쭈듯 손을 들어 저기 저 큰 기와집이라고 말씀올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그만 여기서 끝나고말았습니다. 옆에서 자던 동생이 돌아누우면서 꽃순이를 건드려놓았던것입니다.

(좀 더 꾸었으면 좋았을걸…)

꽃순이는 꿈을 더 꾸려고 다시 잠자리에 누웠으나 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꿈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놓치기 아쉬운 꿈이였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여난 꽃순이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여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라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마을에 오실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입구 언덕길이 험한데로 어떻게 오실가, 돌부리들을 모조리 없애서 길을 반듯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꽃순이는 여기로 나온것입니다. 그가 한참 돌을 파내고있을 때 마을의 한 아저씨가 꽃순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꽃순이 아니냐? 웬일이냐, 혼자서?》

꽃순이는 아저씨에게 어제 밤의 꿈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꽃순이는 요즘 자나깨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 생각뿐이구나.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

운다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언제건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만나뵙게 된단다.》

《정말이예요?》

꽃순이는 아저씨에게 바싹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그래그래, 꼭 만나뵙구 말구.》

어쩐지 아저씨의 말을 그대로 믿고만 싶었습니다.

(정말… 쉬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언제 이 길을 지나가실지 몰라.)

꽃순이의 생각은 깊어갔습니다.

꽃순이는 더 정성스레 언덕길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반년나마 지난 어느날, 뜻밖에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마을에 들리시여 꽃순이가 공부하는 학교부터 찾아주시였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설레이는 선생님들,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학생들, 바로 그속에 꽃순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나깨나 뵙고싶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모습, 자애로운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뵈옵게 되니 마음은 하늘에 닿을것 같았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규모있게 꾸려진 운동장과 질서정연한 체육기재들, 아담한 토끼사, 정갈한 교사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교원, 학생들이 학교를 깨끗이 잘 꾸렸다고,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습니다.

꽃순이는 꿈을 꾸고있는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날입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학교를 나서시여 마을길로 향하시였습니다.

바로 꽃순이가 아침저녁 쓸고 닦고 가꾼 그 언덕길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일군들과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는것이였습니다.

꽃순이의 두볼로는 맑은 이슬이 흘러내렸습니다.

꽃순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 오늘은 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공부도 더 잘하고 좋은 일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꽃순이의 기특한 마음을 본받아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며 **김정은**선생님만을 믿고 따르는 참된 아들딸로 자라나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당과 수령을 따르는 마음은 인생의 유년기에도 한마음, 인생의 청춘기에도 한마음, 인생의 로년기에도 한마음이여야 한다.》

제3과. 생활을 검박하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언제나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다니며 검박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생활을 검박하게 하여야 합니다.

생활을 검박하게 한다는것은 조건에 맞게 생활을 고상하게, 혁명적으로 한다는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하여 쓸데없는 꾸밈이나 가식이 없이 산다는것을 말합니다.

생활을 검박하게 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생활풍습입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소박한것을 좋아했습니다.

색을 하나 골라도 모양을 하나 따도 남의 눈에 크게 띄지 않는 은근하고 부드러운 색, 소박한것을 좋아했으며 그런것을 고상한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생활을 검박하게 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오래동안 간고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혁명하는 사람은 자기의 본색을 감추기 위한 걸치레를 반대합니다.

일을 적게 하고도 많이 하였다고 과찬하거나 꾸미기 좋아하면 허풍에 물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도모르는 사이에 혁명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쓸데없이 멋을 부리고 남의 식을 본따기 좋아하는것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허황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입고 먹고 쓰는데서 사치와 허례허식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실천적인 모범으로 검박하게 생활하는것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늘 다른 사람들과 꼭같이 지내는것이 제일 마음 편하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소박한 옷차림을 하시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분을 항일혈전의 나날에 이름 떨치신 녀장수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라에 애국미를 바치러 왔던 김제원농민이 무거운 벼가마니도 손수 부리워주시고 세수물도 떠다주시는 어머님을 미처 알아뵙지 못한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머님께서는 색다른 음식을 드시는 일도 거의 없으시였고 자제분들에게도 검소한 식사를 보장하군 하시였습니다.

어느때인가 누가 어머님께서 지으신 밥을 보고 왜 잡곡밥을 지었는가고 물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조밥을 먹는데 우리라고 흰쌀밥을 지어먹겠는가, 앞으로 나라살림이 펴이면 우리도 흰쌀밥을 지어먹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산에서 싸우실 때에는 나라가 해방되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살아보자고 하시던 어머님이시였고 조국에 개선하시여서도 인민들의 생활이 넉넉해진 다음에 마음놓고 음식을 들겠다고 하시던 어머님이시였습니다.

참으로 어머님은 언제나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검박하게 생활하신분이시였습니다.

우리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의 모범을 따라배워 생활을 검박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색다른 차림새,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지 않는 차림새는 거리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리게 합니다.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고 격에 맞지 않는 차림새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인품을 높이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생교복이 제일입니다. 학생들은 학생교복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용품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쓰는데서도 검박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의 눈에 뜨이는 물건을 쓰고 자랑하기 좋아하며 남의 나라 물건을 즐겨 사용하는것은 검박한 생활태도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생활도 깨끗하고 문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머리도 제때에 깎지 않아 더부룩하고 아무때나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것은 소박한 생활과 인연이 없습니다.

너절하고 무질서하게 되는대로 사는것은 낡고 뒤떨어진 생활태도입니다.

우리는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에 태여난 새 세대답게 쓸데없는 겉치레를 반대하고 생활을 사회주의생활양식대로 검박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제4과. 만경대할아버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로동과 창조의 기쁨은 근로하는 사람만이 맛볼수 있는 참으로 귀중한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물건은 다 로동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처럼 중요한것이 없으며 로동에 한생을 바치는것처럼 보람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로동에 땀을 바쳐가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맛볼수 없는 참으로 귀중한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로하는 인민은 로동을 사랑하며 로동에 한생을 바쳐가는것을 락으로 삼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은 한생을 농사일로 늙으신 부지런한 농민이시였습니다.

할아버님의 한생은 농사일을 락으로 삼으시고 모든 힘을 거기에 깡그리 바쳐오신 한생이였습니다.

해방전에 할아버님은 몹시 가난하게 사시였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아드님과 손자분들의 혁명사업을 뒤받침해주시면서도 일년 열두달 어느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시였습니다.

이른새벽에 밭으로 나가시여 온종일 힘든 일을 하시다가 저녁늦게야 집으로 돌아오군 하시였습니다.

밤이면 밤대로 새끼를 꼬시고 짚신도 삼으시였습니다.

또 눈비 오는 날에는 멍석도 만드시고 돗자리도 짜시였습니다.

할아버님은 무슨 일이나 알뜰하게 하시였습니다.

메마른 땅도 알뜰하게 다루시여 기름진 땅으로 만드시였고 논밭에 풀 한포기도 묵여두지 않으시였습니다.

산기슭에 있는 나무잎과 길바닥의 검불까지 쓸어모아 좋은 거름을 만드시였고 구정물도 받아모으시여 거름을 썩이시였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농쟁기를 아끼고 소중히 다루시였습니다.

어둠이 깃들 때까지 발갈이를 하신 날에도 보습에 묻은 흙을 말끔히 닦으시였고 보습날이 녹쓸지 않게 돌우에 얹어두군 하시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께서 쓰시는 농쟁기들은 늘 새것처럼 든든했습니다.

할아버님의 정갈하신 일솜씨를 보여주듯 그 농쟁기들은 오늘도 만경대고향집에 그대로 소중히 보관되여 만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고있습니다.

만경대할아버님은 농사일로 나라를 받드는것을 농사군의 도리로 여기신분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을 해방하신지 몇해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남조선에서 온 김구라는 사람이 만경대할아버님을 찾아뵌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님께서는 집마당에서 울바자를 엮고계시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그 사람은 할아버님께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계시는것을 보고 몹시 놀라했습니다. 집안팎을 눈여겨보아도 다 수수한 세간뿐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할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손자님을 한 나라의 수령으로 두신분이 어찌하여 이런 험한 일을 하시는가고 말씀올렸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주름진 얼굴에 웃음을 지으시며 손자는 한 나라의 수령이지만 나는 농사군으로서 어찌 일을 하지 않겠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예로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였는데 농사군인 내가 농사를 잘 지어야 우리 손자가 나라일을 더 잘할것이 아닌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할아버님의 말씀에 그 사람은 머리가 저절로 수그러졌습니다.

(예로부터 훌륭한 사람에게 훌륭한 부모가 있다 하지만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할아버님이시야말로 이 세상에 다시 찾아뵈올수 없는 조선의 참다운 할아버님이시구나!)

그 사람은 할아버님을 우러르며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였습니다.

제5과. 그들은 무엇을 몰랐는가

창수와 기호가 1학년에서 공부하던 때입니다.

어느날 창수와 기호사이에는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수학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여 창수가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한 책상에 앉은 기호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칠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저 문제 푸는 멋있는 방법을 배우겠니?》

《뭘? 멋있는 방법?》

창수는 영문을 알수 없었습니다.

(조금전에 답이 꼭 맞게 풀었는데 또 무슨 멋있는 방법이람?)

《여기 있어. 이거야.》하며 기호는 책상안에서 《수학문제풀이집》이라는 책을 꺼내놓았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여러 아이들도 호기심이 나서 모여들었습니다.

창수가 책장을 뒤져보니 거기에는 정말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몇줄 안되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창수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떻게 된거야? 난 선생님이 배워준대로 풀었는데…)

창수는 갑자기 책을 기호에게 획 집어던졌습니다.

《야, 이런거나 자꾸 보구 베끼니까 시험때마다 마지막자리를 차지하지.》

그는 칠판에 자기가 풀었던것을 와락 지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동무들이 와— 하고 웃어댔습니다.

이때까지 새물거리던 기호의 낯색이 벌개지더니 그의 입에서 다

급한 말소리가 튀여나왔습니다.

《뭐가 어째? 내가 늘 마지막자리야? 그래서 넌 쥐꼬리만큼 알아가지고 우쭐대는거야?》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또 와— 하고 웃어댔습니다.

《쥐꼬리? 뭐 쥐꼬리만큼이라구?》

창수는 《쥐꼬리》라는 소리에 부아가 나서 소리질렀습니다.

기호가 발딱 일어서고 창수도 기호앞으로 바싹 다가섰습니다. 금시 주먹질이 벌어질듯한 기세였습니다.

동무들이 그들을 떼놓아서야 싸움은 멎었습니다.

때마침 마지막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국어시간이 시작되였습니다.

그러나 성이 가라앉지 않은 창수와 기호의 귀에는 선생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보시는것도 모르고 그들은 서로 마뜩지 않게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공부가 끝나자 담임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창수와 기호는 약속이나 한듯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말씀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이 다툼질 한걸 다 들었어요. 그래 왜들 싸웠나요?》

창수와 기호는 머리만 수그릴뿐 대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담임선생님은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학급학생모두를 둘러보시며 누구에게라 없이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 생활하느라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언짢을 때도 있어요.

생활에서 많지는 않으나 가끔 있게 되는 귀에 거슬리는 말과 불쾌한 행동앞에서 어떤 동무들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되는대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어떤 동무들은 자기의 기분을 억제할줄 알며 침착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때 누가 더 돋보일가요?

자기의 기분을 억제할줄 알고 조절할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며 <자제력이 있다>는 높은 도덕적평가도 받게 됩니다.》

주위는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습니다.

모두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빨간 수첩을 펼쳐들며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집단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동지들을 까다롭게 대하는 현상을 없애고 너그럽게 대하는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에 깃든 깊은 뜻을 새기며 생각에 잠겨있는데 담임선생님이 이야기를 계속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집단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동무들을 까다롭게 대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하는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성격과 취미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과정에는 서로 생각을 잘못한데로부터 동무들사이에 언짢은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기의 격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면 자제력을 잃고 분별없이 말하고 행동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화목을 보장할수 없고 어디에 가서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자제력이 도덕적행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품성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마디마디 창수와 기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창수와 기호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까지 동무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대할줄 몰랐어. 내가 기호를 위해주는 마음으로 대했더라면 싸움은 하지 않았을것이고 공부에서도 도움을 받았을거야. 사실 수학문제를 푸는데는 한가지 방법만 있는것도 아니지 않는가.)

(자기의 격한 감정을 누를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더욱 돋보이게 된다는것을 오늘에야 알았다. 자제력, 확실히 나에게는 자제력이 부족했어. 내가 창수동무의 말을 너그럽게 받아들였더라면 다툼질을 안하는걸 그랬어. 제머리로 하지 않고 남의것을 베껴먹는 버릇을 비판해준건 옳은것이지.)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창수와 기호는 더욱 가까와졌고 학급에서는 서로 존중해주고 너그럽게 리해하여주면서 화목하게 생활하는 기풍이 새롭게 서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사람은 겸손할수록 돋보이는 법이다.》

과외읽기

《앞으로 많이 배워주십시오》

주체49(1960)년 9월 어느날 아침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대학에 첫 등교를 하게 된다는것을 알게 된 **김일성**종합대학 어느 한 학부의 학부장선생님은 남먼저 출근하여 정문밖 큰길가로 달려나가 이제나저제나 승용차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쯤 지나서 학생복을 입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속에 섞여 정류소쪽에서 걸어오고계시였습니다.

학부장선생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급히 걸어나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인사를 올리며 학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를 반가이 맞으시며 앞으로 많이 배워주십시오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사실 제가 오늘 학부장선생님을 만나 인사를 드리려고 왔는데 선생님이 먼저 저를 이렇게 맞아주시니 제가 도리를 다하지 못한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겸허하신 말씀까지 받고보니 학부장선생님의 가슴은 더더욱 뜨거워지고 머리가 수그러짐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제6과. 혁명선배에 대한 의리

혁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됩니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의 길에서는 세대교체가 있기마련입니다. 여기서 혁명의 전세대 사람들을 선배라고 하고 다음세대 사람들을 후배라고 합니다.

혁명선배는 혁명에 먼저 참가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공적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혁명위업은 혁명의 1세들에 의하여 개척되고 2세들에 의하여 굳굳이 이어졌으며 오늘은 3세, 4세들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혁명의 1세, 2세들은 물론 3세, 4세들도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혁명의 선구자들이며 혁명위업을 위하여 생을 바치고 공적을 남긴 혁명선배들을 후대들이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사이의 도덕의리에서도 더 숭고한 도덕의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혁명선배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것은 새 세대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혁명선배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웠기때문입니다.

지난날 혁명의 1세와 2세들은 미일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습니다.

그들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피와 땀을 바친것은 다름아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혁명선배들의 투쟁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행복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혁명선렬들이 이룩해놓은 업적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는것은 자기의 참다운 은인에 대하여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로 됩니다.

혁명선배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것이 새 세대들의 마땅한 도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혁명선배들이 이룩한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며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이 새 세대들에게 맡겨진 신성한 의무이기때문입니다.

혁명의 1세, 2세들을 비롯한 혁명선배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혁명의 계주봉을 넘겨주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새 세대들에게서 조국의 찬란한 래일을 내다보고있습니다.

이것은 새 세대들에 대한 혁명선배들의 크나큰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새 세대들인 우리는 이 믿음에 반드시 보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새 세대들이 혁명선배들의 믿음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행동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 세대들에게 있어서 혁명선배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이룩한 업적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고수발전시켜나가는것은 신성한 의무로, 도리로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혁명선배에 대한 의리의 참다운 귀감이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지난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로혁명가들을 귀중히 여기고 존경하시였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시였습니다.

한 로혁명가가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들다는 병으로 앓고있을 때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그가 입원한 병원을 찾으시여 그에게 건강회복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시고 온갖 치료대책을 다 세워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병원문을 좀처럼 나서지 못하시였습니다.

무거운 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나드는 문을 생각깊이 바라보시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 호실에 누워있는 투사도 그런 사람입니다, 수령님을 모시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로혁명가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여생을 빛내일수 있게 잘 보살펴주는것은 우리들의 혁명적의리이며 마땅한 도리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은 일군들을 크나큰 격정으로 목이 메게 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후 몸소 그 투사가 수술을 받을 때 그의 립회인이 되시여 그가 마음놓고 수술을 받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로투사는 건강을 회복하고 혁명사업에 자기의 열정을 계속 쏟아붓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혁명선배에 대한 의리를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기에 오늘도 로혁명가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새 세대들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있는것입니다.

우리 새 세대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높은 뜻과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혁명선배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은 혁명선배들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야 하며 언제나 혁명선배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여생을 보내도록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혁명선배의 최고대표자는 수령이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적의리의 최고표현이다.》

《혁명선배들을 헐뜯고 그들의 사상과 업적을 모독하는것은 혁명을 모독하는것이며 혁명의 원쑤들앞에 아부굴종하는것이다.》

제7과. 말을 주고받을 때에 지켜야 할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말에는 례의를 나타내는 표현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웃사람을 존경할 때 쓰는 말도 있고 동무들사이에 스스럼없이 쓰는 말도 있으며 아래사람들을 대할 때 쓰는 말도 있습니다.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이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이야기에 오르는 사람을 높이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례의범절을 정확히 나타낼수 있습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례절을 잘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주고받을 때 례절을 잘 지켜야 서로 이야기가 통하고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옳게 들을수 있습니다.

말을 주고받을 때 지켜야 할 례절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말하는 사람이 례절있게 말하고 행동하는것입니다.

우선 말을 례절있게 하여야 합니다.

말은 언제나 유순하고 침착하게 조용히 하여야 합니다.

말을 유순하고 침착하게 조용히 하여야 부드럽고 친근감이 들며 다정한감을 줍니다. 목청을 돋구어 말하면 듣는 사람에게 자극을 주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말은 될수록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하여야 합니다.

말을 너무 빨리하면 듣는 사람이 말뜻을 알아들을수 없게 되고 반대로 너무 느리게 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답한감을 주고 싫증을 느끼게 합니다.

말을 지나치게 빠르게, 느리게 하는것은 상대방을 생각지 않는 무례한짓입니다.

말을 할 때 쓸데없는 군소리를 섞지 말아야 합니다.

말끝마다《말이야, 말이야》한다거나 말을 시작할 때마다《오-》,《어-》하는 등 군소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의 중심을 놓치게 할뿐아니라 불쾌하게 합니다.

《씨》나《제기랄》과 같은 말은 상대방을 모욕하는것으로 됩니다.

또한 말하는 사람은 행동도 례절있게 하여야 합니다.

말을 할 때 몸가짐을 잘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의 말에서만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행동을 통해서도 자기를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말을 아무리 유순하고 친절하게 한다고 해도 몸가짐이 비뚤고 건방지게 보이면 친근감을 주지 못합니다.

웃사람과 말을 할 때에는 단추를 단정히 채워야 하며 자연스러우면서도 바른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말을 할 때 표정은 부드럽게 하여야 합니다.

부드러운 표정은 상대방에게 따뜻하고 친근한감을 주지만 무표정하고 찌프린 표정은 상대방에게 불쾌한감을 줍니다.

말을 할 때 헛눈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헛눈을 팔거나 딴곳에 시선을 주면서 건성건성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끌지 못합니다.

말을 할 때 쓸데없이 손짓, 몸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과 몸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말하는것은 겸손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것으로서 례절에 어긋납니다.

특히 웃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앞에서 손짓, 몸짓을 지나치게 하는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됩니다.

말을 주고받을 때 지켜야 할 례절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말을 듣는 사람이 례절있게 행동하는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것은 말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성실성의 표시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면서 덤덤히 있거나 딴 생각을 하며 헛눈을 파는것은 상대방의 말이 마깝지 않고 시끄럽다는것으로 됩니다.

또한 남의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고 하여 자기 말을 꺼내여 남의 말을 중단시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도덕없는 행동입니다.

비록 이야기내용이 틀리거나 자기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더라도 참을성있게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런게 아니다.》, 《가만, 내 말을 들어.》, 《알만해.》, 《그만 됐어.》 등으로 남의 말을 끊어버리면 상대방에 대한 더없는 모욕으로 됩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의 표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성의있게 듣는다는것을 나타내게 하여야 합니다.

이야기내용에 따라《예…예…》,《그렇습니다.》,《옳습니다.》등으로 긍정할수도 있고 같은 또래의 동무들인 경우에는《그래.》,《옳아.》, 《응.》 등으로 친근하게 이야기를 받을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내용에 따라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성의껏 간단히 대답해주는것이 듣는 사람의 도덕입니다.

말을 주고받을 때 지켜야 할 례절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말싸움을 하지 않는것입니다.

자기 말만 말이라고 하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들으라고만 한다든

가, 말꼬리를 가지고 옥신각신한다면 결국 말하는 사람만 있고 듣는 사람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감정만 나빠지고 사람들사이는 점점 버그러지게 됩니다.

학생들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친근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말을 주고받는데서도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깊은 생각끝에 나오는 무게있는 한마디의 말은 별생각없이 하는 열마디, 백마디의 말보다 더욱 힘있고 예리하며 강한 인상을 준다.》

제8과. 참된 동지적사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은 진실하고 성실하여야 하며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혁명을 같이 해나가는 사람들사이의 진실하고 성실한 사랑이 참된 동지적사랑입니다.

원래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모든 성의를 다하여 돕는 아름다운 마음이며 그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헌신성입니다.

참된 동지적사랑은 우선 그 어떤 꾸밈도 거짓도 없는 깨끗한 사랑입니다.

참된 동지적사랑을 지닌 사람은 자신을 알아줄것을 바라거나 그 어떤 평가를 바라고 동무를 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동지를 위하여 자신을 깡그리 바칠뿐입니다.

참된 동지적사랑은 그 누구를 자기에게 끌기 위한 얼림수도 아니며 사람을 가려가면서 대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끌기 위하여 마음에도 없이 사랑하는척하는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사랑으로 될수 없으며 사람을 가려가면서

가까이 하는것은 참된 동지적사랑과 인연이 없습니다.

동지들사이에는 누구도 가림이 없이 믿고 아끼고 돕는 사랑, 참으로 진실하고 성실한 사랑만이 있을뿐입니다.

참된 동지적사랑은 또한 원칙적인 사랑입니다.

참된 동지적사랑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동지를 믿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진실한 동지적사랑은 같은 사상과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전우들이 지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혁명의 한길에서 변하지 않으며 시련속에서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혁명의 길에서 떨어져나가는자들과는 타협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참된 동지적사랑은 또한 그 어떤 사심도 모르는 고상한 사랑입니다.

사심이란 제 욕심만 채우려는 나쁜 마음입니다. 사심이 있는 사람은 동무를 대할 때 제 리속을 먼저 생각하며 동무를 도와주고도 대가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동지를 위한다면서 그 어떤 자기 개인의 리익을 앞세우는것은 동지애와 인연이 없습니다. 자기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동지를 사귀여도 리해관계를 따지며 자기에게 리로울 때에는 사랑하는척 하다가도 그렇지 못하면 동지를 버리는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네가 하나 주었으니 나도 하나 준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받은것만큼 동지를 위해준다는것도 동지애와는 인연이 없습니다. 이러한《갚음》은 받은것만큼 주고 그보다 더 많이는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하는 행동으로서 이것이 자라나 굳어지면 당과 수령의 은덕도 모르고 지어 배은망덕할수 있는 해로운 행동입니다.

우리는 동지들을 혁명의 길을 함께 걷는 전우로 대하고 그 어떤 사심도 없이 모든것을 다 바쳐 위해주고 도와주는 참다운 동지적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동지의 사랑이며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수 없는것이 동지의 믿음이다.》

제9과. 집단의 일을 더 귀중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은 집단의 리익을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집단의 리익을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자기 개인의 리익을 위한 일보다 집단을 위한 일에 더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집단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면서 자기 개인의 일때문에 집단의 일에 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개인의 리익을 앞세우면서 조직과 집단의 일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원칙이 서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조소와 버림을 받습니다.

집단주의적원칙은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원칙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집단의 리익입니다. 집단이 있고서야 개인의 생명도 있고 집단이 발전하여야 개인의 행복한 생활도 보장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거기에 개인의 리익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경남이는 조직과 집단의 리익이 자기 한사람의 리익보다 더 귀중하다는것을 잘 알기때문에 언제나 자기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켜 잘 처리해나갑니다.

형님이 군대에 나가는 날이였습니다.

경남이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벽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침 벽시계가 오후 2시를 알리며 땡땡 울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형님이 떠나겠구나. 역에 나갈가?…

소년단모임에 참가하는건 어떻게 하구…)

시계를 올려다보며 번거로운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던 경남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량심의 목소리가 소곤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경남이, 넌 자기를 기다리고있을 동무들 생각은 왜 안하니? 네가 자기 일을 보느라 역으로 가는 동안 동무들은 모임도 못하고 모여앉아 아까운 시간만 보내라는거야? 자기의 도리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게 어디 소년단원이냐? 너의 형도 소년단모임에 빠지고 바래주러 나왔다면 잘했다고 하지 않을거야. 어서 돌아서라.)

경남이의 발길은 어느새 학교로 옮겨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동무들이 벌써 다 모여 경남이가 오기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정말 여기 오길 잘했구나. 큰일날번 했어.)

분단위원장과 동무들은 그가 오자 모두 반갑게 맞이해주고 형님의 인민군대입대를 축하해주면서 모임을 끝내고 빨리 역에 나가보라고 걱정해주었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분단위원장이 앞에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동무들, 어제 우리 분단에서는 경남동무 형님이 떠나는것을 다같이 바래워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모두 역으로 나갑시다.》

때마침 학교정문앞에 뻐스가 와서 경적을 울리였습니다. 모두가 뻐스에 올랐습니다.

뻐스에 앉은 경남이는 분단위원장과 동무들이 여느때없이 돋보이였습니다.

경남이는 감격에 겨워 분단위원장의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참 고마와. 나때문에 이렇게 동무들이 모두 떨쳐나설줄은 미처 몰랐어.》

《아니야, 그건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게 어디 너 혼자서 할 일이겠니? 혼자의 일이라 해도 조직과 집단은 자기 분단 소년단원들을 돌봐주는걸 도리로 여긴단다. 소년단원들이 없는 집단이 어떻게 있을수 있니? 그래서 집단이 귀중하면 거기에 속한 소년단원들도 다 귀중한것이란다.》

경남이는 그 말에 담겨진 뜻을 잘 알수 있었습니다.

경남이는 동무들의 믿음속에서 사는 기쁜 마음을 안고 앞으로 집단생활에 더욱 충실할것을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조직은 투쟁의 무기이고 생활의 거점이며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고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어머니품이다.》

《개인은 오직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 되여야 혁명의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제10과. 전화례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전화는 서로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말하는것이기때문에 겸손하게 하여야 합니다.》

전화는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때문에 전화를 할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례절있게 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화를 걸 때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전화를 거는 사람이 말을 겸손하게 하면 받는 사람도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의껏 받으며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수 있게 합니다.

신호를 한 다음 전화가 걸리면《여보세요.》,《여보십시오.》하고 상대방을 부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인사말과 함께 자기 소개를 하고 찾는 곳과 사람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선중학교 학생 김윤희입니다. 구역도서관입니까? 김순희선생님을 찾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희동무의 집입니까? 개선중학교 학생 김윤희입니다. 금희동무와 한 학급에서 공부합니다. 금희동무를 찾습니다.》 등으로 상대방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가 찾는 사람이 직접 나오면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같은 동무라고 하더라도 반말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화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는것만큼 다정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여야 합니다.

만약 찾는 사람이 직접 전화를 받지 않을 때에는 《미안하지만 ○○동무를 찾아주실수 있습니까?》라고 부탁할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찾아보겠습니다.》 하면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례의를 지켜 말해야 합니다.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알려주어 고맙습니다. 후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라고 례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찾는 대상이 전화를 받으면 부드러우면서 똑똑하게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전화는 간단명료하게 하여야 합니다. 잘 아는 사이라고 하여 롱질을 하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상대방에게 자기의 용건을 똑바로 전달하지 못할뿐아니라 그의 사업에 지장을 주고 주위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화가 끝나면 전화를 건 사람이 먼저 인사말을 례절있게 하여야 합니다.

인사말은 《안녕히 계십시오.》, 《전화를 놓겠습니다.》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웃사람에게 《수고하십시오.》라고 말하는것은 례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됩니다.

웃사람과 전화를 할 때에는 웃사람이 수화기를 먼저 놓은 다음에 놓는것이 례절에 맞습니다.

다음으로 전화를 받을 때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호종이 울리면 인차 수화기를 들고 상대방에게 자기 소개를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개선중학교 학생 김윤희 전화받습니다.》 혹은 《학생 김윤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등으로 응답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화가 잘못 걸려왔을 때에는 《잘못 걸었습니다. 여기는 손님이 찾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친절하게 말하여야 합니다.

전화를 받을 때 자기 소개를 하지 않고《예.》하고 말하거나 또 전화가 잘못 걸려왔다고 하여 《아니요.》하고 수화기를 놓으면 그것은 실례로 됩니다.

전화는 친절하게 받아야 합니다.

웃사람이 걸어오는 전화를 받을 때에는 몸자세를 바로하고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지 못한다고 하여 옷차림을 되는대로 하거나 자세를 바로하지 않는것은 례절이 없는 표현입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전화를 받는것은 상대방에 대한 도덕이 없는것으로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상대방에게 《알겠습니다.》, 《알겠다니까요.》 등으로 말허리를 꺾는것은 상대방에 대한 무시로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예.》, 《예.》 하고 응답을 보내여 어디까지나 듣고있다는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으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 알수 없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수화기를 든채로 기침을 하거나 하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화기를 막고 돌아서서 하여야 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의 요구를 성심성의로 받아들이는것은 전화를 받을 때 지켜야 할 중요한 례절입니다.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면《잠간 기다리십시오. 곧 바꾸어드리겠습니다.》 혹은 《지금 안계시는데 2시간후에 다시 전화를 하십시오.》라고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탁하는 경우에는《어서 말씀하십시오.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라고 성근하게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

바쁜 시간에 부탁한다고 하여 신경질을 부리거나《없어요.》하고 단마디로 잘라버리면 그것은 도덕이 없는 행동으로 됩니다.

전화가 끝나면 전화를 받은 사람도 《안녕히 계십시오.》 또는 《전화를 놓겠습니다.》라고 답례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전화례절을 잘 지키는것은 사람들의 고상하고 문화적인 풍모를 보여줍니다.

소년단원들은 어려서부터 전화례절을 잘 지켜 자신을 고상하고 문명한 사람으로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말은 곧 사람이다.》

《언어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수 있게 하고 밖에 내비칠수도 있게 하는 <창문>이라고 할수 있다.》

제11과. 저만 잘살려는 개인리기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개인리기주의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개인리기주의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개인리기주의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저만 잘살려고 하는 나쁜 사상입니다.

개인리기주의는 집단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을 더 앞세웁니다.

집단의 리익은 집단을 이루고있는 사람들모두의 리익입니다.

집단의 리익속에 개인의 리익이 있고 집단의 리익이 커지는데 따라 개인의 리익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이런데로부터 한개 집단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같이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게 되고 집단의 리익을 크게 하기 위하여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리기주의자들은 집단의 리익속에서 자기의 리익을 찾으려 하는것이 아니라 집단이야 어떻게 되든 제 리속만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저만 잘살고 잘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너절한 사상입니다.

개인리기주의는 자기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리익을 침해하고 희생시키는것도 서슴지 않는 사상입니다.

개별적사람들사이에서는 누구의 리익은 귀중한데 누구의 리익은 덜 귀중하다는것이 있을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누구도 자기 리익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리기주의는 다른 사람의 리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 개인의 리익을 추구합니다.

개인리기주의는 지주, 자본가와 같은 착취계급의 사상입니다.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이 로동자, 농민과 같은 아무런 권리도 못가진 사람들을 마구 착취하고 압박하여 제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아무런 량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지주, 자본가와 착취계급이 재산과 돈을 모으며 호화롭게 잘살고있는것은 다 인민들의 피땀을 빨아 제 배를 채운 결과입니다. 개인리기주의는 바로 이런 놈들의 사상입니다.

개인리기주의는 매우 해로운 사상입니다.

개인리기주의는 우선 집단에 해를 줍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수 없으며 집단을 이루고 살 때 사람답게 살수 있습니다.

물론 집단은 개별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것만큼 개별적인 사람

을 떠나서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람들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집단이 어떻게 되는가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그런것만큼 사람들은 자기 개인보다 집단을 더 귀중히 여기게 되며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리기주의에 물젖은 사람은 자기 개인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집단의 리익을 생각하지 않기때문에 집단을 튼튼히 하고 더욱 발전시키는데 해를 끼칩니다.

개인리기주의는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해로운 사상입니다.

개인리기주의를 하여 아무리 잘산다고 하여도 그것은 참으로 보람있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의 참생활은 자기만을 위한 생활에 있는것이 아니라 집단을 위한 생활, 동지들을 위한 생활에 있습니다.

동지와 집단을 위해 바치면서 사는 생활이 아름다운 생활이며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리기주의를 하는 사람은 제일 너절한 사람입니다.

개인리기주의자들은 돈과 재산밖에 모르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악한짓도 꺼리낌없이 합니다.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으며 멀리합니다.

그러므로 개인리기주의자들은 사람값에 들지 못하고 비난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버림을 받고 사는 생활처럼 괴롭고 떳떳치 못한 생활은 없습니다.

사람이 개인리기주의에 물젖게 되면 나중에는 량심마저 줴버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귀중한것은 량심입니다.

량심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며 오히려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개인리기주의에 물젖어 량심까지 줴버리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리익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반역자, 매

국노로도 될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결국 개인리기주의를 하면 자신도 큰 화를 입을수 있습니다.

개인리기주의를 하면 또한 사회주의도 지킬수 없게 됩니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입니다. 집단의 리익을 앞에 놓고 집단의 리익을 실현함으로써 개인의 리익도 실현하는 사회가 사회주의입니다.

그런것만큼 집단의 리익을 해치면서 개인의 리익만 내세우는 개인리기주의가 퍼지면 사회주의는 그 밑뿌리가 흔들리게 되고 나중에는 허물어질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무너진 일부 나라들의 교훈이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절대로 버릴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야말로 전체 인민이 다같이 잘사는 가장 좋은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개인리기주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개인리기주의적인 행동도 하지 말며 개인리기주의사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약과 같다.》

제12과. 조국이 잊지 않는 서강렴소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조국이 요구한다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를 가지고 조국을 굳건히 받들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조국은 사람들에게 참된 삶과 행복을 안겨주는 요람이며 어머니품입니다. 그러기에 그 품에 안겨사는 사람들은 어머니조국을 지켜 자기의 귀중한 생명도 서슴없이 바칩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의 수많은 소년단원들은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의 뒤를 이어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위험에

처한 조국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그가운데는 조국이 영원히 잊지 않는 서강렴소년도 있습니다.

서강렴소년은 자기의 모범으로 우리들에게 조국이 위험에 처하였을 때 소년단원들이 어떻게 자기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참된 소년단원이였습니다.

조국애에 불타면 어린 소년단원들도 원쑤치는 싸움에 나설수 있습니다.

서강렴소년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깨우쳐준 잊지 못할 동무입니다.

1950년 마가을 어느날, 서강렴소년이 덕지강언덕에 서서 미제원쑤놈들이 들이닥칠 고향마을을 바라보며 총릴 마음을 가다듬던 때 그는 우리 나이또래의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원쑤에 대한 증오로 세차게 불타고있었습니다.

(개놈들, 아무리 날쳐봐라. **김일성**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이 행복의 보금자리를 빼앗길줄 아느냐!

내 힘은 아직 약하지만 물어뜯어서라도 네놈들과 싸워 조국앞에 드리운 위험을 가셔버리고 기어이 우리 조국을 지켜내리라.)

이렇게 심장으로 맹세를 다진 서강렴소년은 언덕에서 내려 그길로 빨찌산을 찾아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그도 다른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말없이 공부 잘하고 례절밝아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어질고 착한 소년이였습니다.

그런 소년을 간악한 원쑤놈들의 총구도 겁내지 않는 용사로 되게 한것은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였습니다.

조국은 그에게 행복을 주었으며 찬란한 래일을 약속해주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행복을 안고 학창시절을 보내던 그 나날들은 꿈만 같았고 굳게 약속된 래일에 대한 희망은 나래돋힌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운 조국이 위험에 처한것이였습니다.

서강렴소년의 뇌리에 갈마든 생각은 오직 하나, 그 고마운 조국을 지키는것이 자신의 마땅한 도리라는것이였습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을 지닌 소년들은 슬기와 용맹으로 침략자들과 싸워 반드시 이길수 있습니다.

간악한 원쑤들과의 싸움은 소년들에게 있어서 힘에 부친 싸움입니다.

하지만 애국에 불타는 소년들에게는 그 어떤 간악한 원쑤도 가질수 없는 슬기와 용맹이 있습니다.

이 슬기와 용맹은 그 어떤 원쑤도 맥을 추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힘으로 됩니다.

서강렴소년은 조선소년단원의 슬기와 용맹으로 침략자들을 요정내군 했습니다.

서강렴소년은 빨찌산에서 임무를 받고 동무들과 함께 놈들이 둥지를 틀고있던 성내리에 감쪽같이 내려가 적정을 탐지하여 산에 알려주기도 하고 고원거리의 골목골목 담벽에 삐라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알아낸 적정자료는 빨찌산의 수동해방전투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고 삐라는 군내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크게 안겨주었습니다.

한번은 적들이 욱실거리는 읍거리의 중심부 높은 집꼭대기에 공화국기를 꽂아 인민들에게 밝아오는 래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적도 있었습니다.

통신선을 끊는 일이며 군수창고 불지르기 등 그들의 투쟁은 어느것 하나 위험하지 않은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싸우면 싸울수록 힘이 나고 지혜가 생겨났으며 원쑤놈들도 더 많이 녹아났습니다. 적들은 소년단원들의 슬기와 용맹에 넋을 잃고말았습니다.

조국애에 불타는 소년단원들은 최후의 순간에도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서강렴소년이 바로 그런 소년단원이였습니다.

싸움이 그칠사이없이 벌어지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서강렴소년은 그만 덕지강다리에서 놈들에게 체포되였습니다.

놈들은 빨찌산의 비밀을 대라고 그에게 무서운 고문을 들이대기도 하고 사탕을 내놓으면서 얼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강렴소년은 놈들의 총구앞에서도 그 어떤 꾀임에도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빨찌산의 비밀을 지키는것은 곧 동무들과 조국을 지키는 일이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원쑤들을 몰아내고 또다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품에서 살고싶었지만 제 한목숨이 아까와 동무들과 조국을 배반하는 역적이 될수는 없었습니다.

서강렴소년은 최후를 앞둔 순간 놈들을 향하여 힘차게 웨쳤습니다.

《개놈들아! 나는 오늘 죽는다. 그러나 조선소년단원의 량심은 다치지 못한다.》

어린 나이에 조국을 지키는 싸움길에 나서서 슬기와 용맹으로 원쑤놈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소년, 최후의 순간에도 비밀을 끝까지 고수한 서강렴소년은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켜 싸운 조국은 오늘도 잊지 않고 그를 소년영웅으로 길이 추억하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사랑하는데서부터 애국심이 자라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와 신념이 생기게 된다.》

제13과. 우리 나라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조선에서 혁명을 해야 할 사람들인것만큼 우리 나라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선땅에서 살며 조선혁명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조선사람은 선조들의 뼈가 묻혀있는 제 나라, 제 땅에서 살아야지 다른데 가서 살수는 없습니다.

조선사람은 조선에서 살면서 우리 나라 자원을 가지고 우리 인민의 힘으로 이 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을 하자면 우리 나라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잘 알아야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 우리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잘 모르면 우리의것을 무시하게 되고 나아가서 남의것을 쳐다보게 됩니다.

남의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우리의것은 다 나쁘고 남의것은 다 좋게 보며 결국 우리 나라, 우리 인민도 몰라보는 반역의 길에 떨어질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잘 알아야 모든 문제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열렬한 애국자로 될수 없습니다.

조선혁명을 해야 할 우리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위대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일제에게 빼앗긴 우리 나라를 찾아주시고 인민의 국가를 세워주시였으며 조국땅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

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을 마련해주신 주체의 태양이시며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십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빛내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김일성**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충신중의 충신,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신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였으며 령장의 풍모를 완벽하게 지니시고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이끌어주신 희세의 위인, 위대한 태양이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과 꼭 같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은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영원한 단결의 중심이십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위대성을 잘 알아야 우리는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우리 당, 조선로동당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창건하시고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빛내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모두가 안겨사는 자애로운 어머니품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아버지, 어머니도 줄수 없는 정치적생명을 이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안겨주고 빛내여주며 영생의 언덕에까지 세워줍니다. 때문에 사람들은《그 품 떠나 못살아》라고 노래에 담아 부릅니다.

오늘 우리 당, 조선로동당은 수천수만의 자식들을 혁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입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우리 민족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5 000여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 대대손손 한민족으로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라가 많고많아도 한민족으로 살아오는 인민을 가진 나라는 많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처럼 나라를 굳건히 지켜온 민족도 많지 못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외적의 침략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켰을뿐아니라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을 발전시켜 세계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우리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입니다. 이 제도하에서 우리 인민은 모든것의 주인이 되여 참다운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며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온 나라가 한식솔되여 더욱 번영할 강성대국을 건설해가고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선군정치의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선군정치는 군사를 앞세우는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정치입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던 민족의 운명을 지켜냈으며 제국주의의 검질긴 포위속에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눈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만능의 보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받들어 선군정치를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십니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우리의 선군정치를 따라배우려는 기운이 날로 높아지고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우리 나라의 권위와 위신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가장 위대한 정치방식을 가지고 가장 훌륭한 제도에서 살고있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제14과. 실례했을 때 사과하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인사성이 없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활과정에 간혹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하여 예견치 않았던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흔히 실수하였다고 합니다.

실례란 실수하여 례절에 어긋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것입니다. 실례한것은 례절을 지키지 못한것으로 되지만 그것을 깨닫고 상대방에게 사과한것은 례절바른 행동입니다.

사과에는 자기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는 그 사람의 깨끗한 마음이 비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사과하면 상대방의 리해와 동정을 받게 되지만 잘못을 느낄줄 모르고 사과할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될수록 실례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실례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과할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그마한 해라도 끼쳤으면 피해를 가셔주면서 례절바르게 사과하여야 합니다.

뻐스안에서 누구의 발을 밟았을 때나 또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거나 밀쳤을 때는 대상에 맞게 사과하여야 합니다.

웃사람인 경우에는 《미안합니다.》, 《안됐습니다.》라고 사과해야 하며 심한 경우 상대방이 넘어졌거나 아픔을 느낀다면 《제가 부주의로 그만… 어디 상한데는 없습니까?》라고 사과의 말을 하고 경우에 따라 부축해드려야 합니다.

자기또래의 동무들인 경우에는 《미안해.》, 《정말 안됐어. 상한데는 없니?》라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또 낮은 학년의 학생들인 경우에도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어. 울지 말아.》하며 사과하고 넘어졌으면 일으켜세워주고 옷의 먼지도 털어주며 사과하여야 합니다.

또 자기 실수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피해를 가셔주기 위하여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다른 동무의 소설책이나 학습장을 빌려보다가 손상을 주었을 때는《정말 미안해. 내가 잘 붙여줄게.》라고 사과하든가 또 정성껏 손질해가지고와서 《미안해. 성의껏 붙이느라고 했는데 제대로 되였는지 모르겠어.》 하고 사과하는것이 례의에 맞는 행동입니다.

남의 물건을 빌려쓰다가 못 쓰게 만들거나 잃어버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는 그와 같은 대품을 가지고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사과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리해를 하면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여야 합니다.

실례를 가셔줄수 없는 경우에는 사과의 마음이라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른 동무의 학습장에 잉크방울을 떨구었다면 《정말 안되였구나. 내가 지워보자.》라고 하면서 지우개를 찾아 지워주어야 합니다.

생활에서 실례를 하고 사과하였지만 상대방이 노여움을 풀지 않았거나 리해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거듭 사과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듭 사과하지 않고《잘못했다는데 왜 그래요?》라고 한다든가 《잘못했다지 않아.》 하고 언성을 높이면 이미 사과한것이 진실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 되고말며 오해를 풀수 없습니다.

또한 생활에서 부득불 실례되는 일을 해야 할 경우에 량해를 구할줄 알아야 합니다.

례하면 웃사람의 앞을 꼭 지나가야 한다거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비좁은 곳을 지나가야 하거나 무엇을 물어볼 일 또 먼저 자리를 떠야 할 일이 있으면 사과의 말을 례절있게 하여야 합니다.

사과의 인사말에는 자기가 하려는 어떤 행동을 허락하여달라는 뜻에서 하는 말도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앞을 지나가도 일없겠습니까?》 또는《실례합니다. 좀 지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며 《실례이지만 여기가 어디입니까?》, 《실례이지만 말을 좀 물읍시다.》 등의 말차림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중이지만 저는 먼저 자리를 뜨겠습니다.》라고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 량해를 구할수도 있습니다.

실례했을 때 사과하는것은 우리 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실례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게 되면 서로 오해와 나쁜 감정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정하고 친근한 사이로 되게 됩니다.

학생들은 그 어떤 일에서 실례되는 일을 하였으면 반드시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인간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도덕적풍모에 있다.》

과외읽기

량수이취엔쯔(량수천자)에서 있은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22(1933)년 겨울 부대를 이끄시고 량수이취엔쯔에 있는 한 중국로인의 집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원들에게 인민들의 일을 제집 일처럼 도와주며 될수록 그들에게 페를 끼치지 말게 하자고 간곡히 이르시면서 아침이면 몸소 집안팎을 깨끗이 거두시고 물까지 길어 독에 가득 채워놓으시였습니다.

어느날 아침은 류달리 추워 물구멍에 두터운 얼음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물을 긷기 위하여 도끼를 드시고 강가로 나가시였습니다.

얼음을 다 까내려갔을 때 그만 도끼자루가 빠지면서 그 구멍속에 도끼가 빠지고말았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장대끝에 갈구리를 매여가지고 강밑을 더듬으시였으나 물이 깊어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보통생각으로는 집주인에게 일을 성심성의로 해주다가 그리된 일이니 할수 없다고 단념할수도 있었지만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도끼를 찾으시려고 계속 애쓰시였습니다.

대원들이 주인에게 값을 치르어주자고 말씀드렸으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무리 값을 많이 주어도 자기의 손때묻은 물건이 없어진 아쉬운 생각이야 어떻게 덜어줄수 있겠느냐고 하시며 좀처럼 단념하시지 않으시였습니다.

그러나 강밀에 묻힌 도끼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인집로인에게 도끼값을 후하게 치르시면서 재삼 사과하시였습니다. 로인이 한사코 사양하였지만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끝내 도끼값을 드리시였습니다.

그후에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 로인에게 참으로 미안하게 되였다고 거듭 말씀하군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48(1959)년 여름 항일무장투쟁전적지답사단이 중국으로 떠날 때 한 항일혁명투사선생님에게 자신께서 량수이취엔쯔에 있을 때 한 중국로인네 도끼를 잃어버리고 끝내 찾아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면 그 로인을 꼭 찾아서 다시한번 사과해달라고 또다시 말씀하시였습니다.

한 로인의 도끼를, 그것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잃어버리시고 찾아드리지 못한 일을 고스란히 품고 잊지 못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풍모앞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제15과. 세금없는 우리 나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세금제도가 완전히 페지됨으로써 인민들이 조세부담에서 영원히 해방되였으며 사회의 재부가 늘어나는데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계통적으로 높아지고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 세금없는 나라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생활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제도는 다른 나라들에 그대로 있어 인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있습니다.

세금은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이 자기의 통치제도를 유지하고 제놈들의 배를 불리우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됩니다.

때문에 착취사회에서 국가는 세금종류를 수많이 만들어놓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인민들로부터 세금을 빨아냅니다.

세금은 오랜 세월 인민들에게 대대로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들씌워왔습니다.

일제는 우리 나라를 강점한 첫날부터 우리 인민에게 악착하기 그지없는 세금제도를 강요하였습니다.

놈들은 우리 인민에게 땅을 쓰면 지세, 집을 쓰고 살면 가옥세 등 각종 명목의 세금을 들씌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은 하루도 마음놓고 살아갈수가 없었습니다.

일제놈들이 강요한 세금부담에 못이겨 온 가족이 집단자살을 하고 귀여운 자식들을 눈물속에 빼앗기며 살길을 찾아 낯설고 물설은 이역땅으로 떠나간 사람이 그 얼마였는지 모릅니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우리 인민을 지지리 못살게 굴던 그 저주로운 세금제도가 오늘은 미제가 강점한 남조선땅에서 또다시 착취수단으로 리용되여 남조선인민들을 눈물과 한숨, 가난과 도탄속에서 시달리게 하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세금종류가 200여가지나 되는데 거기에는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무는 주민세,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여 무는 상속세를 비롯하여 오물을 버리면 오물세, 길을 걸으면 통행세, 굴뚝을 세우면 굴뚝세, 담장을 쌓으면 담장세 등 별의별 세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남조선인민들은 세금때문에 하루도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고있으며 온 가족이 한지에 나앉고 거지가 되는 일이 수없이 빚어지고있습니다.

남조선사회는 말그대로 세금지옥으로 되여있습니다.

그러나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세금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았으면 하던 우리 인민의 오랜 꿈을 실현시켜주신분은 우리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벌써 온갖 세금을 없애는것을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한 조항으로 넣으시였으며 해방후에는 일제의 반동적인 세금제도를 철폐하는것을 민주개혁의 중요내용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근로자들의 세금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55(1966)년부터는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하여주시고 주체63(1974)년에는 국가법령으로 로동자, 사무원들이

내던 얼마 안되는 세금마저 완전히 없애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게 되였습니다.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 그것은 언제나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부담도 주지 않으시려 늘 마음쓰시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만이 주실수 있는 고마운 혜택입니다.

세금제도의 페지는 국가가 있으면 의례히 세금도 있기마련이라는 사람들의 오랜 상식을 뒤집어놓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시위한 커다란 사변이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세금없는 나라로 된것은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잘 살아서가 아니였습니다.

세금제도를 페지하던 그때로 말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한창 벌어져 돈도 귀중히 써야 할 때였습니다.

세상에는 부유하다는 나라도 많고 우리 나라보다 일찌기 발전했다는 나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민들을 세금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문제는 경제발전이나 나라의 크기에 따르는것이 아니며 사회주의를 먼저 건설했다고 하여 해결되는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어떤 인민적인 시책을 실시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인민들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워오던 세금제도의 페지와 같은 사변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인민의 어버이로 모신 우리 나라가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우리 인민이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른다는것을 아직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금없는 나라에서 사는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한시도 잊지 말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16과. 글을 쓰는데서 지켜야 할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글은 누구나 보고 알수 있게, 이야기하자는 내용이 명백하고 론리에 맞게 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과 함께 글로도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귀고 교제할 때 하는 말과 글은 자기만 보고 듣는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쓰는것입니다.

말로 직접 교제할 때에는 상대방의 리해정도를 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얼굴표정과 손짓, 몸짓으로 자기의 의사를 더 정확히 상대방에게 전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 교제할 때에는 오직 글로써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글을 상대방이 알수 있게 써야 합니다.

글을 쓰는데서 지켜야 할 례절은 무엇보다도 글은 내용이 명백하면서도 간결하게 써야 한다는것입니다.

글은 내용이 뚜렷하게 안겨오도록 명백하게 써야 합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의문이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다시 물어보고 정확히 리해할수 있지만 글은 그자체만 보고 리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글은 말하려는 내용, 해명하려는 사실을 명백하게 써야 합니다.

글은 간단하면서도 군더더기나 빈틈이 없이 째이게 써야 합니다.

글을 쓸 때 필요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리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글의 내용을 명백하고 간결하게 쓰지 못하는것은 글을 읽는 사람에 대한 례절없는 행동으로 됩니다.

글을 쓰는데서 지켜야 할 례절은 다음으로 글을 쉬운 말로 써야 한다는것입니다.

글을 쓸 때 리해하기 힘든 말이나 사투리를 쓰면 보는 사람이 그 말뜻을 잘 리해하지 못합니다. 글을 보고도 무슨 말인지 또 무슨 내용인지 리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분을 매우 언짢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글이든 누가 보든 쉬운 말로 써야 합니다.

글을 쓰는데서 지켜야 할 례절은 다음으로 글씨를 알아볼수 있게 똑똑히 쓰는것입니다.

글은 자기뿐아니라 선생님도 보고 부모들도 보며 또 동무들도 보게 됩니다.

때문에 글씨를 흘려써서 보는 사람이 겨우 뜯어보거나 잘 읽지 못하게 하는것은 상대방에 대한 실례로 됩니다.

비록 글씨는 잘 쓰지 못해도 한자한자 성의를 다하여 쓴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례절을 지키는것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에는 언제나 남이 본다는 립장에서 똑똑히 알아볼수 있게 써야 합니다.

특히 늙은이들과 시력이 나쁜 사람들이 볼 글을 쓸 때에는 큼직큼직하게 또박또박 박아써야 합니다.

글을 쓰는데서 지켜야 할 례절은 다음으로 종이의 크기에 맞게 보기 좋게 쓰는것입니다.

글의 제목과 내용의 구분도 없이 꼭같은 크기로 글자를 쓰거나 문장문장사이의 단락도 없이 종이모서리 끝까지 빼곡이 써놓으면 글을 보는 사람에게 복잡한감을 주며 글을 읽고도 내용이 잘 안겨오지 않습니다.

제목은 종이의 맨 웃부분에 큰 글씨로 써야 합니다.

종이모서리와 네면 끝까지 바투 쓰지 말고 아래우와 량쪽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써야 합니다.

글을 쓰는데서 지켜야 할 례절은 다음으로 글을 쓰는 종이도 문화성있게 준비하는것입니다.

아무 책에서나 종이장을 뚝 떼내서 모서리가 너슬너슬한 종이우에 글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글을 쓰다가 틀렸다고 하여 쭉 그어버리거나 글을 쓴 종이우에 마구 락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편지를 쓰는 경우에는 편지지와 봉투를 깨끗하게 만들고 우표도 규정대로 붙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글을 쓸 때 례절을 잘 지켜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17과. 썩고 병든 사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자본주의사회는 썩고 병든 사회입니다.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는 무엇보다도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가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사회라는것은 이 사회가 돈을 사람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모든것이 돈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회라는것입니다.

사회는 사람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의 주인은 사람이며 사회에는 사람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는 거꾸로 되여있는 사회입니다. 다시말하여 자본주의사회는 사람이 주인으로 되여있는것이 아니라 모든것이 돈에 의하여 좌우지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으로도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팔고 살수 있으며 사람의 생명도 좌지우지할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단 한발자국도 움직일수 없는것이 자본주의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병원에 가도 돈, 학교에 가도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살래야 살수 없고 돈많고 권세있는자들만이 풍청거리면서 살수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황금만능의 사회라고 합니다.

병이 나도 돈 한푼 안들이고 치료해주며 공부도 무료로 시켜주는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이런 사회가 바로 거꾸로 된 사회,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입니다.

병원도 학교도 다 사람을 위해 필요한것이지 돈을 위해 필요한것일수 없습니다.

돈은 절대로 사람을 대신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사회, 자본주의사회는 사람은 살아도 주인으로 되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돈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는 사람의 생명도 돈에 의하여 서슴없이 팔리웁니다.

어느해 일본에서는 한 가난한 사람이 부자놈에게 자기의 콩팥을 일본돈으로 1천만￥(엔)에 판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콩팥을 파는 날 부자놈에게 약속한 콩팥을 가져가라고 알리고는 집에서 목매달아죽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전화내용이 후에 다음과 같이 알려졌습니다.

《당신에게 내 콩팥을 주겠다. 콩팥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려고 독약을 먹거나 아래층에 떨어져 죽지 않고 목매달아 죽겠으니 곧 내 시체를 찾아가라.》

돈이 오죽이나 숨통을 조였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였겠습니까. 죽음의 길을 택한 그 사람의 사정은 그렇다치고 죽은 사람의 콩팥을 돈으로 바꾸어간 그 부자놈에게는 도대체 인간다운 량심이란 찾아볼수도 없습니다.

썩고 병든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어느 하루도 번지지 않고 벌어지는것이 보통일로 되고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돈을 사람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사람의 생명도 돈에 의하여 팔리우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입니다.

자본주의사회는 또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인간생지옥입니다.

약육강식은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동물세계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이 법칙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들사이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돕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동물세계의 약육강식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가난하고 무권리한 사람들은 한시도 마음놓고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사람들은 인간생지옥이라고 합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사람이 살았을 때 죄를 지으면 죽어서 끓는 류황가마에 들어가는 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간다는 지옥은 실지로 없지만 살아서 아무 죄도 없이 가는 《인간생지옥》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사람이 사는것만도 기적으로 되고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인구수보다 더 많은 총이 온 나라에 퍼져 골목과 지어 큰 거리에서 대낮에도 사람들을 겨냥하여 총질을 하고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이골이 난 각종 깡패무리가 활개를 치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자동차에 달려들어 돈지갑을 털고 사람들을 무리로 쓸어눕히고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는 또한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생활이 판을 치는 개같은 세상입니다.

자본주의사회는 한편에서는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이 헐벗고 굶주리고있을 때 다른 편에서는 부자놈들이 돈을 물쓰듯 하면서 진탕치며 사는 사회입니다.

미국의 한 억만장자는 자기가 기르는 개를 비행기에 태워 워싱톤으로 데리고가서 고급목욕탕에서 목욕을 시키고 최신식개모자,

꽃구두, 몇만US$에 해당한 보석목걸이를 사서 개의 몸치장을 해주고 일류급호텔에 들어 최고급의 료리를 먹인 다음 고급침대에서 재웠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단 한푼의 돈이 없어 술한 사람들이 동냥의 손을 내밀고있을 때 티끌만 한 동정도 모르는 인간 아닌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사회, 자본주의사회는 정녕 개같은 세상입니다.

자본주의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인간의 참다운 세상인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가를 명심하고 자본주의의 그 어떤 침입으로부터도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해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자본주의사회는 썩고 병든 사회이며 전도가 없고 멸망에 가까와가는 사회이다.》

제18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할 때의 례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손님들을 존경하며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며 허식을 버리고 우리 나라의 진실을 보여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그대로 계승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와 경험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오는 손님들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례절있게 대하는것은 그들에게 우리 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게 하며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례절있게 맞이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이하여야 합니다.

자기 학교나 자기 가정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면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를 찾아오신 선생님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선생님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집을 방문해주셔서 기쁩니다.》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맞아들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나라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례절있고 의젓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할 때의 말과 행동은 다만 자기 한 사람의 교양정도나 도덕인품을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주는것으로 됩니다.

학생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령도를 받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할 때 의젓하고 여유있게 이야기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우선 물어보거나 알고싶어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물쭈물하지 말고 자기가 알고있는것만큼 정확히 대답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나눌 때 큰소리로 웃거나 딴곳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례절없는 행동입니다.

외국인이 필요한 장소를 물으면 살뜰하게 대답하여줄뿐아니라 해당한 곳까지 데려다주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주인으로서 이야기를 주동적으로 끌고나가야 합니다.

하나 물어보면 하나 대답하는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야기방향을 끌고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설득력있게 해설해주어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참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김새와 옷차림, 행동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다른 나라 사람들앞에서 그들의 행동을 흉내내거나 수군거리며 비웃거나 손가락질을 하는것은 례절없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고 할 때와 물건을 주려고 할 때 례절있게 처신하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면 사진찍어도 좋은 장소인가 아닌가를 확인한 다음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진을 찍지 못할 곳이면 《왜 이런 곳에서 찍겠습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갑시다.》라고 안내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친근한 감정을 가지고 기념품을 주려고 할 때《감사합니다. 기념으로 받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사양하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 불순한 목적에 리용하려고 물건이나 돈을 줄 때에는《성의는 고마우나 저에게는 필요없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좋은 만년필이 많습니다.》라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여야 합니다.

헤여질 때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도록 《앞으로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기간 즐거운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방문기간 성과를 바랍니다.》 등의 인사말을 하면서 정답게 손을 흔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동방례의지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19과. 공동로동에 성실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참가하는것을 영예롭게 생각하고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일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은 어느 한두사람의 힘만으로는 건설할수 없으며 또한 하루이틀에 건설되는것도 아닙니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은 모든 근로자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공동로동을 꾸준하고도 성실하게 벌려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습니다.

그런것만큼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동로동에 빠지지 말고 적극 참가해야 합니다.

공동로동은 집단을 이루고있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진행하는 로동입니다.

집단의 리익이 실현되는 공동로동에 빠지는것은 비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주체형의 인간은 자기 개인의 리익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집단의 리익을 위해서는 모든것을 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주체형의 인간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높이 떠받들리우는것은 바로 이러한 고상한 마음을 가졌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개인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집단의 리익이 실현되는 공동로동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 개인의 리익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동로동에 참가하여 자기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로동의 성과는 거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 맡은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사람은 집단에 손해를 준것으로 하여 떳떳치 못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일을 하면 떳떳이 총화할수 있게 하는것이 공동로동에 참가하는 사람의 마땅한 일본새입니다.

공동로동에 참가해서는 반드시 일을 열성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로동은 거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리익을 위한 로동인것만큼 공동의 리익에 포함되는 자기의 몫을 자신이 책임지고 실현하는것이 도리입니다.

남이 애써 얻은것을 공짜로 차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로동에 참가하면 자기도 남만 못지 않게 한몫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자리를 내기 위하여 애써 일해야 하며 눈치를 보면서 적게 하려고 하는 비량심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로동에 참가하여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를 미리 잘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를 미리 알아보고 그에 맞게 필요한 도구를 갖추며 앞서 해야 할 일들을 창발적으로 미리 해놓아야 합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공동로동에 참가하면 품을 많이 들여도 일자리를 크게 낼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버릇을 붙임으로써 사회에 나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위훈의 창조자, 혁신자가 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꽃은 졌다가도 다시 피지만 한번 흘러간 청춘시절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젊은 시절에 건달을 부리며 하루를 놓치면 그것은 나이든 다음에 열흘, 백날이 걸려도 회복하기 힘들다.》

제20과. 양보할줄 알아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은 말그대로 배우는 사람인것만큼 언제 어디서나 례절바르게 행동하여야 하며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예술영화 《보증》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게 된 딸이 당일군인 아버지에게 사회에 나가면 무엇부터 배워야 하는가고 묻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양보하는것부터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에게 배울것이 많고많은데 왜 양보하는것부터 배우라고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양보할줄 아는 사람이 도덕이 밝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품성을 지닌 사람이기때문입니다.

도덕이 밝고 아름다운 품성을 지닌 사람이란 다름아닌 사회와 집단, 다른 사람에게 리롭게 행동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양보한다는것은 자기에게 차례진것을 사회와 집단,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물러서는것을 말합니다.

양보할줄 아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되는것은 이처럼 자기의 리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사회와 집단, 다른 사람을 위할줄 아는 사람이기때문입니다.

사람은 양보할줄 알아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존경도 받습니다.

사람들은 양보할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돼지같은 욕심쟁이》라고 합니다. 돼지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먹이가 보이면 또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양보할줄 모르는 사람도 바로 돼지처럼 제 욕심만 차립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취급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미움과 조소, 증오를 받습니다.

사람은 양보할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수 있고 화목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가정에 맛나는 음식이 생기면 서로 양보하여 형은 동생앞에 놓아

주고 동생은 형에게 권하며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 양보할 때 그 가정은 례외없이 화목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는 다른 동무들에게 돌리고 어렵고 힘든 일은 저마다 맡아나서면 동무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되고 집단은 화목하고 단합됩니다.

서로 자기 리익과 편리만 생각하고 양보할줄 모르면 옥신각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 사이좋게 지낼수 없습니다.

또 자기 생각만 제일이라고 하면서 고집만 부리고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서로 충돌하고 나중에는 싸움까지 벌리게 됩니다.

양보는 누구한테 이기지 못하여 물러서는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하여 사양하는 아름다운 소행입니다.

양보는 자기가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보는 도덕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때문에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양보할줄 아는 품성을 지니자면 무엇보다도 뜨거운 인정미가 있어야 합니다.

인정미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씨입니다.

우리는 뻐스나 전차, 렬차에서 로인이나 애기어머니들, 나이많은 웃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여주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저 할아버지는 나이도 많으신데 뻐스안에서 서서 가면 불편할거야. 또 저 애기어머니는 어린애까지 업고 서있으니 얼마나 힘들가. 내 자리를 내여드려 편리하게 해드리자.)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것도 가늠하고 자리를 양보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보할줄 아는 아름다운 품성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 불편한것을 덜어주고싶은 마음이 그윽해야 지닐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양보할줄 아는 품성을 지니자면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데서 기쁨을 느낄줄 알아야 합니다.

양보하는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편리를 도모해주고 즐겁게 해주었을 때 느끼는 기쁨은 양보할줄 아는 사람만이 맛보는 기쁨입니다.

양보는 그것이 크나작으나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좋은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또 다른 사람이 기뻐할것을 생각하면 자기 마음도 즐거워지고 기쁨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드시 양보해야 할 때에 모르는척 하고 외면하면 그날은 마음이 울적하고 불안하며 기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응당 지켜야 할 도덕을 지키지 않았기때문입니다.

남을 위해 양보할줄 아는 학생만이 마음이 늘 떳떳하고 생활에서 기쁨을 느낄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양보하는데 습관되여 양보할줄 아는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도덕이 밝은 사람으로 될수 있습니다.

과외읽기

후치령의 새 전설

주체56(1967)년 7월 어느날에 있은 일입니다.

이날 후치령기슭의 한 협동농장일군은 자동차운전사와 함께 검은골어구의 외통길에서 차들이 왕래가 적은 점심시간을 리용하여 석탄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쯤 지나서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 한대가 달려와 멎더니 이런데서 석탄을 부리면 되는가고 성을 내며 빨리 길을 비키라고 독촉하였습니다.

참 딱한 일이였습니다.

이때 앞켠 산굽이에서 승용차 한대가 또 나타났습니다.

승용차안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문건을 보고계시였습니다.

승용차운전사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두 화물차운전사에게 사정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운전사는 약속이나 한듯이 차에 올라 곧 발동을 걸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순간에 헤아리시고 승용차운전사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시간이 바쁘고 길이 험할수록 큰 차를 몰고다니는 운전사동무들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고 조용히 타이르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화물차는 승용차를 만나면 먼저 길을 비켜주는것을 응당한 일로 여기고있었습니다.

오직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만이 평범한 화물차운전사들의 불편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그들에게 도리여 길을 양보해주시였습니다.

제21과. 사람은 대바르게

사람은 어릴 때부터 대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한생을 대바르게 산다는것은 어떤 정황속에서도 원칙을 지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한모양, 한본새로 살아간다는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활하는 과정에 나쁜것을 보고 참지 못하며 일단 옳다고 생각한것은 목에 칼이 들어온대도 주저함이 없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며 지키는 참다운 인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음이나 품성이 비뚤지 않고 속대가 참대와 같이 곧고 굳셉니다.

대바른 품성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옳바른것을 지켜 참되게 살수 있게 합니다.

대바른 사람은 우선 주대가 있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원칙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사업에서 날을 세울수 없고 잘못된 일을 제대로 바로잡아나갈수도 없습니다.》

대바른 사람은 자기의 똑똑한 주견이 있고 원칙이 강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좌왕우왕 흔들리게 되며 잡아끌면 끄는대로 나쁜길인줄도 모르고 이끌려갑니다.

생활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으려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말씀을 깊이 학습하여 옳고그른것을 가르는 자막대기를 가져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나 대바르게 살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줍니다.

예술영화《이 세상 끝까지》에서 앞못보는 영예군인인 정철이가 축산을 못하게 하려고 책동하는 종파놈들과 맞서 대바른 말을 할수 있은것은 바로 축산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었기때문입니다.

두눈을 똑바로 뜨고있다고 하여 옳고그른것을 명백히 가려보는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말씀을 모르면 눈뜬 소경이 되고맙니다.

대바른 사람은 또한 잘못된것을 보고는 참지 않으며 할 말은 꼭 하고야맙니다.

결함이 있는 동무라는것을 알면서도 그가 열성자라느니, 자기와 가까운 사이라느니, 웃학년이라느니, 옆집에서 사는 동무라거니 하면서 바른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말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해도 안되지만 반드시 해야 할 말은 할줄 알아야 합니다.

해야 할 말도 하지 않으면 무맥한 사람이 되고맙니다.

바른 말 한마디는 평시의 열백마디의 말보다 훨씬 값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대바른 사람은 또한 이쪽저쪽 발라맞추면서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옳고그름을 가릴줄 안다고 하여 결코 대바르게 사는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리저리 흔들리는것은 옳고그름을 가리지 못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뻔히 알면서도 이쪽저쪽에 나쁘지 않게 적당히 붙어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당에는 바람따라 돛을 답니다.

사람들은 비굴하게 발라맞추며 사는것을 수치로 느낄줄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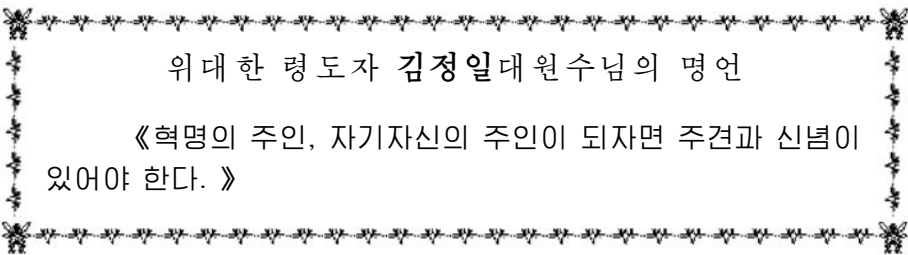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가정은 대대로 대바르게 살아오신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습니다.

《원래 우리 집안사람들이 대가 셌다.》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이 얼마나 대바른분들이였는가 하는것은 일제가 조선사람들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라고 강요하였을 때에 있은 한가지 사실만 놓고도 잘 알수 있습니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의 성과 이름을 고치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에서 차별하고 매까지 안기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은 죽을지언정 놈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삼촌이신 김형록선생님은 매도 여러번 맞았고 주재소의 호출도 여러번 받으시였습니다.

순사가 나서서 《오늘부터 너는 김형록이 아니다. 네 이름이 뭐냐?》하고 물으면 김형록선생님은《김형록이외다.》하고 대답하시였습니다.

순사가 달려들어 귀뺨을 때리며 《다시 말해봐. 이름이 뭐냐?》 하고 또 물어도 변함없이 《김형록이외다.》 하고 대답하시였습니다. 김형록이라는 대답 한마디에 주먹이 한대씩 안겨졌지만 두려워 비굴하게 굴복할 선생님이 아니시였습니다.

김보현선생님은 아들의 이런 행동을 잘했다고 평가하시며 맞아죽으면 죽었지 이름을 고쳐서는 안된다고, 사람은 언제나 대바르고 굳세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대바른 품성은 정의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소년단원들은 대바르게 사는것이 정의로운 도덕품성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어렸을 때부터 부정의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투쟁하는 대바른 품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혁명의 주인, 자기자신의 주인이 되자면 주견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제22과. 저주받을 반역의 무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남조선괴뢰정권의 력대 통치자들은 례외없이 미일제국주의자들이 길러낸 그들의 앞잡이들이며 자기 상전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입니다.》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에서는 끊임없이 《정권》이 바뀌였습니다. 그때마다 괴뢰정권의 《대통령》자리에는 각양각색의 반동통치배들이 들어앉았습니다. 그 역적의 무리들은 하나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이 길러낸 앞잡이들이였으며 자기 상전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입니다.

해방후 제일 처음 《대통령》자리에 들어앉았던 리승만역도는 일찌기 해방전부터 미국에서 상전이 던져주는 빵부스레기를 얻어먹으면서 주구로 키워진 매국노였으며 리승만이 거꾸러진 다음 그 자리를 타고앉은 장면놈도 역시 일제때 조선사람들을 일본사람으로 만든다는 일제의 악독한 정책실현의 앞장에 섰던 일제놈의 개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놈은 한때는 일제놈의 개가 될것을 서약하고 일본군복을 입었던 친일주구였으며 그후에는 상전을 바꾸어 미제놈의 개로 복무한 미일제국주의자들의 2중주구였습니다.

주구를 바꾸어가면서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늘 써오는 식민지통치수법입니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반정부기세가 높아가고 장면의 통치가 위태롭게 되자 미제는 저들의 심복인 박정희놈을 군사깡패로 길들였습니다. 박정희놈은 마침내 미제의 부추김밑에 1961년 《5.16군사정변》을 일으켜 장면을 밀어내고 《대통령》자리를 가로타고 앉았습니다.

미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전두환, 로태우, 김영삼, 리명박 등 저들의 충실한 개들을 길러냈습니다.

반역의 무리들은 오직 제놈들의 권세와 리속을 채우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상전들에게 깡그리 팔아먹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반역의 무리들에 의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것이 다 미제놈들의 손에 쥐여있으며 다른 나라 풍조가 휩쓸어들어 민족적인것이 말살되고 인민들은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잃고있습니다.

온 남조선땅이 미제의 군사기지로 전변되고 북을 겨냥한 군사연습이 그칠날이 없이 벌어져 하늘땅과 바다가 포연에 잠기고있습니다.

참으로 반역의 무리에 의하여 남조선은 말그대로 미제의 식민지로 전변되였으며 인민들은 도탄속에 허덕이게 되였습니다.

놈들에게는 그 어떤 자그마한 민족적량심도 없습니다.

놈들은 오직 권세와 치부밖에 모르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량심도 도덕도 서슴없이 줴버립니다.

남조선의 반역의 무리들은 또한 극악한 인간백정들입니다.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치고 인간백정이 아닌 놈들이 없지만 전두환, 로태우, 김영삼, 리명박놈들같이 극악한 인간백정은 세상에 드뭅니다.

1980년 5월, 전두환놈은 미제놈들이 시키는대로 광주인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하여 살인으로 악명을 떨친 가장 악질적인 부대를 동원하고 땅크와 장갑차, 지어 로케트부대까지 도시에 들이밀어 로인, 아이, 어머니들을 가림이 없이 모조리 쏘아죽이고 땅크로 깔아죽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며칠 안되는 사이에 광주는 말그대로 《피의 목욕탕》, 《죽음의 도시》로 되여버렸습니다.

반역의 무리들의 만행이 어찌나 참혹했던지 다른 나라 텔레비죤방송까지도 광주참상을 보도하면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텔레비죤앞에 오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김영삼역도와 리명박역도는 인간아닌 야만들입니다.

김영삼놈의 정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때에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의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최대의 슬픔이고 가장 큰 손실이였습니다.

민족의 어버이의 서거는 온 민족, 온 인류를 비애의 바다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세기의 위인을 잃은 손실에 접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물론 우리 나라를 적대적으로 대하던 나라 수반들까지도 조전을 보내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를 추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통한 시각에 유독 김영삼역도만이 칼을 빼들고 초상난 집에 불질하는것과 같은 망동을 부렸습니다.

이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30분도 못되여 온 남조선땅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북을 향하여 총을 겨누었으며 슬퍼하는 남조선인민들을 마구 잡아가두었습니다.

리명박역도 역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민족의 어버이를 그리며 진심으로 추모하는 남녘의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슬픔에 잠겨 목메여우는 우리 인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눈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대역적죄를 저질렀습니다.

초보적인 도덕도 모르는 리명박역도와 그 패당들은 각계의 조문을 위한 평양방문을 가로막았으며 깡패들을 내몰아 분향소들을 모조리 철거시켜 조의표시도 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간혹 의가 맞지 않아 잘 다니지 않던 이웃간에도 상사가 나면 찾아가 조의를 표시하고 명복을 빌며 화해를 하는것이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우리 민족의 풍속인데 김영삼역도와 리명박역도는 같은 민족으로서 겪는 불상사에 애도는 표시하지 못할망정 슬픔에 모대기는 동족의 가슴에 칼을 박는 천추에 용납못할 반인륜적이고 반민족적인 망동으로서 동족의 피는커녕 인간의 피조차 흐르지 않는 악한들로서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남조선의 반역의 무리들은 또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한사코 반대하는 통일의 원쑤들입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역적들의 책동은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채택을 계기로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남조선의 반역무리들은 온 강토에 굽이치는 통일의 대하를 막아보려고 미친듯이 발광하였습니다.

이놈들은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 의로운 사람들을 줄줄이 법정에 올려세우고 감옥으로 끌어갔으며 북남협력의 길

을 개척한 인사까지 가슴아픈 참상을 겪게 하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8.15해방의 날과 제22차 세계대학생체육대회때에는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이 리용하는 경기장과 훈련장, 숙소주변의 곳곳에서 돈으로 매수한 불한당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심히 중상모독하는 반공화국란동을 감행하였습니다.

피를 나눈 동족을 멀리하고 나라의 통일을 죽기내기로 반대하는 반역의 무리들의 책동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습니다.

력사는 이러한 반역의 무리들의 죄행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야말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원래 력사에 도전하는자들의 림종은 발악을 놓는 법이다.》

제23과. 사양할 때 지켜야 할 례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사양할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양한다는것은 자신에게 돌려지는 호의를 고맙게 여기면서도 남을 위하여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것을 말합니다.

사양할 때 례절을 바로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누가 무엇을 권하거나 줄 때 고마움을 먼저 표시하여야 합니다.

웃사람이 무엇을 권하거나 줄 때에는 먼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그토록 생각해주시니 고맙습니다.》등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것을 저에게 돌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례절을 표시할수 있습니다.

자기또래의 동무들에게는《고맙다.》,《정말 고맙구나.》,《너도 쓸 일이 많겠는데… 잊지 않겠다.》등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것

이 례절에 맞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을 권하거나 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것은 그 사람의 고마운 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답례를 하는 례절입니다.

사양하기 전에 이런 례절을 지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성의를 알아주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더 도움을 주고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마음이 서로 오고가게 되면 더욱 친근해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두터워집니다.

만약 누가 무엇을 권하거나 줄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양한다면 그것은 거절하는것으로 됩니다.

사양하는것과 거절은 다릅니다.

사양하는것은 겸손하게 응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페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받아들이지 않는것이지만 거절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대방에 대한 믿음도 친절한 마음도 없기때문에 그의 요구와 의견, 그 무엇을 주는것을 뿌리치는것입니다.

사양하는것은 례절로 되지만 거절은 례절로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 사양해야 합니까.

자기에게는 리롭지만 상대방에게 페를 끼치는것으로 될 때에는 사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생각해준다고 하여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덥석 받아서는 안됩니다.

기차나 뻐스안에서 자리를 권하는 상대방에게는 《일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도 좋습니다.》라고 사양의 말을 하여야 합니다.

음식을 권하는 경우에는 《저는 많이 먹었습니다. 어서 드십시오.》라고 사양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호의를 사양하는것은 자기의 겸손한 품성을 보여주는것으로서 사람을 돋보이게 합니다. 또 사양하는것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것으로 되기때문에 서로 정이 두터워지고 친절해집니다.

사업성과나 평가가 자기에게 돌려질 때 사양하여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여럿이 함께 한 일에 대하여 자신이 더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차례지는 평가를 사양하고 다른 사람과 집단에 더 큰 평가가 돌려지도록 마음을 쓰며 처신하는것은 고상한 도덕적행동으로 됩니다.

남보다 땀을 더 흘리고도 평가를 다른 동무들이나 집단에 돌리는 학생이 겸손하고 돋보이는 학생입니다.

교실청소를 깨끗이 하여 선생님으로부터 자기가 칭찬을 받았을 때에는《오늘 청소는 저보다 송이동무가 아침일찍 나와 다하였습니다.》라고 자기에 대한 평가를 동무에게 사양할줄도 알아야 합니다.

축구경기에서 꼴을 넣어 동무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에는《오늘 축구경기에서 이길수 있은것은 우리모두가 단합된 힘으로 경기에 잘 참가하였기때문이야.》라고 말할수 있으며 학급을 대표하여 알아맞추기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을 때에는《제가 오늘 우수한 성적을 받을수 있은것은 우리 분단동무들이 모두 적극 도와주었기때문입니다.》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자기에게 차례지는 성과를 집단에 사양하는 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동무들과 집단을 더 내세우는 이런 례절은 동무호상간 믿음과 사랑을 두터이하고 집단을 화목하게 하고 단합되게 합니다.

사양할 때 례절을 바로 지키려면 다음으로 말과 행동을 례절있게 하여야 합니다.

사양한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을 례의에 맞게 하지 못하면 무례한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누가 음식을 권할 때《됐어요. 안 먹을래요.》한다거나《배가 부르다지 않아요.》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다면 례절없는것으로 됩니다.

또 어떤 평가에 대하여서도《난 별로 한것이 없어요.》,《나 혼자 했나요? 다같이 했는데…》라고 한다거나 누가 무엇을 주면 사양한다고 하면서 뿌리치는것과 같은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됩니다.

사양도 례의에 맞게 하여야 도덕으로 되지 례의에 맞게 하지 못하면 도덕이 없는것으로 됩니다.

사양하는데서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과 고마움을 진심으로 느낄줄 알고 그것을 례의에 맞게 표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제24과. 대신할수 없는 자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혁명전사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녀야 일생을 값있게 보낼수 있습니다.》

순간을 살아도 한생을 살아도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위하여 참되게 살려는것은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있는 결심입니다.

그속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언제나 그리며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충직하였던 장영수학생도 있습니다.

영수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앞에서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던 그날 자기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첫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겠다고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그날로부터 영수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초상화정성사업으로부터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초상화앞에서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러러 하루생활을 총화하군 하였습니다.

이럴 때면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속에 더욱 간절하군 하였습니다. 신문을 펼쳐보아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영상부터 찾았고 방송보도를 들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김정일**대원수님의 선군길에 가있었습니다.

이런 나날에 영수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마음이 깊이 자리잡게 되였습니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마음은 하루이틀사이에 간직되는것도 아니고 마음먹었다고 하여 저절로 가지게 되는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생활에서 언제나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 실천과정을 통하여 가슴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영수가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실수 있은것은 일상 생활에서 뜨거운 마음을 키웠기때문입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영수는 바라고바라던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영상을 모시는 배경대에 참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실 그날을 그리며 열심히 훈련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간 영수는 뇌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영수의 마음을 괴롭힌것은 치료하기 힘들다는 사망선고와 같은 진단보다도 최대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대오에서 떨어져 조직과 집단, 친근한 동무들과 헤여져 생활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자기는 죽은 몸처럼 생각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할 영광을 지닌 내가 어떻게 그 대렬에서 떨어질수 있겠는가.

아니야, 심장이 뛰고 정신이 살아있는 한 그럴수 없어. 내가 설 자리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하는 바로 그 배경대다!

이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영수의 마음은 불치의 병도 심한 아픔도 물리치고 그를 다시 배경대에 세웠습니다.

대수술을 받은 환자의 몸인 영수에게 있어서 훈련은 참으로 어려운것이였습니다.

훈련을 종일토록 하느라면 정신이 혼미해질 때도 있었고 수술자리가 쑤시여 식은땀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그리며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훈련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였습니다.

훈련이 련속 반복되는 과정은 육체적준비와 강의한 의지가 없이는 따라설수 없는것이였으나 영수는 남달리 날쌘 접어치기동작으로 집단의 기준전사로, 배경대의 자랑으로 되였습니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항상 마음속에 그리며 사는 사람에게는 심한 병도 아픔도 견디지 못합니다.

10대의 나이에 대수술을 받은 영수가 그처럼 어려움을 견디면서

훈련에 앞장서게 된것은 매일 매 순간 앉으나서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만을 생각하였기때문입니다.

드디여 영광의 시각은 왔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는 순간 영수는 북받치는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임없이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자. 그리고 **김정일**대원수님 안겨주신 우리의 슬기와 지혜를 보여드리자.)

영수는 배경책을 손으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펼쳤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날 공연을 보시고 대단히 기뻐하시며 참가자모두에게 친히 감사를 보내주시고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시였습니다.

영수는 앞으로 공연을 더 잘하여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하리라 굳은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여 두번째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수술을 끝내고 정신을 차렸을 때 영수는 수술자리의 아픔보다도 (공연은 누가 대신했는지, 혹시 대신하는 동무가 실수라도 하면 어쩔가. 아니야, 절대로 다른 동무가 대신할수는 없어.) 하는 생각이 더 앞섰습니다.

영수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다시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는 행사에 꼭 참가시켜달라는 영수의 부탁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절대적인 안정을 해야 한다고 하던 의사선생님들까지 눈물을 흘리며 공연전기간 영수의 곁에서 구급대책을 세워가며 그의 공연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영수는 7월의 명절에 이어 8월의 폐막공연때에도 또다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고 온 세상에 보란듯이 황홀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치의 병으로 진단을 받은 그의 병은 어쩔수 없었습니다.

(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가. 정말, 정말 **김정일**대원수님을 뵙고싶구나.)

그는 눈물을 머금고 자기를 바라보는 선생님과 동무들에게 마지막힘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위해,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하지 못하고 가는것이 안타깝습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장영수는 이렇게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장영수학생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그를 수령숭배, 수령결사옹위의 산모범으로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온 나라가 그의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은정깊은 사랑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우리들은 장영수학생의 그 정신을 본받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높이 받들어모셔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후회없이 한생을 빛나게 살자면 청춘시절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순간을 살아도 값있게 살라.》

제25과. 경기장에서 지켜야 할 도덕

경기장은 경기에 직접 참가하는 선수들과 구경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로 차고넘칩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도덕을 잘 지킬 때 경기가 높은 수준에서 고상하게 진행되며 선수들과 관람자들이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경기를 보다 흥겹게 진행하게 됩니다.

경기장에서는 우선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도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덕은 체육경기를 비롯한 이러저러한 경기들에서 선수들이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 질서를 말합니다.

경기에는 선수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없는 경기란 있을수 없으며 선수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

면 경기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규정을 무조건 지킬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경고나 퇴장과 같은 벌을 주게 됩니다.

경기에는 선수들이 지켜야 할 질서도 있습니다.

례하면 경기도중에 상대편선수에게 야비한 말을 해서는 안된다든가 실수하면 미안하다는 인사말을 해야 한다는것 등입니다.

이러한 질서는 경기규정에 밝혀놓은것이 없으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선수들자신이 스스로 지켜야 할 질서입니다.

바로 이런 질서를 경기도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덕을 잘 지키는것은 선수들의 됨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경기도덕을 잘 지키는것은 우리 체육선수들의 고상한 품성입니다.》

선수는 동무들과 집단의 믿음을 받아 뽑힌 사람입니다.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인 경우에는 나라와 인민이 그들을 선수로 내세웁니다.

선수들의 어깨우에는 동무들과 집단의 믿음과 기대, 조국의 명예가 지워져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선수들은 자기들을 내세워준 조직과 조국앞에 지닌 의무를 다하여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야 합니다.

경기에서의 영예로운 승리는 경기성적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기성적이 높고 훌륭한 기술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경기도덕을 지키지 않아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승리는 영예롭고 떳떳한 승리로 되지 못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이기고 도덕적으로도 앞선 경기라야 이긴 경기입니다.

축구경기에서 꼴을 많이 넣어 이길것만 생각하면서 무례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것은 자본주의사회의 돈에 팔린 선수들이나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선수가 돈에 팔리면 돈만 알지 사람도 조국도 모릅니다.

이런 선수는 경기과정에 상대방선수가 부상을 당하든 죽든 상관

하지 않고 란폭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낄줄 모릅니다.

이런 선수들이 날치는 경기장은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란장판이 되고맙니다.

경기가 사람들의 리익에 철저히 복종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선수들이 마땅히 경기도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참다운 사회주의적도덕품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선수는 우선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경기과정에는 경기와 관련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여있습니다.

승부를 가르는 경기에서는 귀에 거슬리는 약간의 말도 선수들의 신경을 크게 자극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수들은 아무 말이나 망탕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수는 또한 남을 깔보는것과 같은 도덕이 없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만 제일이라고 하면서 자기 편 선수들과 마음을 합치지 않고 독판치려고 한다든가 상대편선수들이 수준이 낮다고 하여 건성건성 장난식으로 경기를 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부주의로 경기과정에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사과의 말도 하고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세워주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줄 알아야 합니다.

경기장에서는 다음으로 경기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도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관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에서 기본은 응원을 잘하는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관람자들의 도덕은 곧 응원자들의 도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응원자들도 큰 역할을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응원도 체육경기에서 한몫 단단히 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체육경기관람은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과는 달라서 박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응원과 축하를 동반합니다.

기술수준이 어리여 패할번 했다가도 응원에서 힘을 얻어 승리한 경기가 적지 않습니다.

응원은 선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책임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응원을 열정적으로 하는것은 응원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도덕입니다.

응원을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식으로 해서도 안되며 남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할 때 책을 보고 뒤로 돌아다니거나 딴장난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행동은 동무들과 집단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선수들에 대한 모독으로 됩니다.

응원은 선수들과 호흡을 잘 맞추어서 할 때 경기성과가 오르고 경기장분위기를 흥성거리게 합니다.

응원자들은 또한 응원을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고상하게 하여야 합니다.

경기운영수준이 낮다고 하여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거나 손가락질하면서 시비하는것은 도덕적으로 저렬한 표현입니다. 특히 자기편 선수를 응원한다고 하여 상대편 선수들이 실수한것을 웃음거리로 여기고 상대편 응원자들을 비웃는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선경기에서는 상대편 선수들이 훌륭한 기술을 보여줄 때 거기에 박수를 보내는것도 하나의 도덕이며 경기를 진행하는 두 편이 다 자기편이 아닌 경우에도 어느 한편에 치중하지 않고 다같이 응원해주는것도 찬양할만 한 고상한 태도입니다.

또한 응원자들은 선수들보다 먼저 경기장에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경기를 진행한 선수들이 관중을 향하여 인사를 할 때 그에 열렬한 답례를 보낼 대신에 자리를 먼저 뜨는것은 례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고상한 경기도덕기풍을 세워나감으로써 높은 기술뿐아니라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선수가 되고 훌륭한 응원자가 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남을 헐뜯거나 시기질투하는 사람은 속물이며 동지적단합을 좀먹는 요물이다.》

제26과. 동지를 위해 바치는 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혁명동지를 위해 바친 생은 가장 고귀하고 값높은 생이며 그것은 동지들의 심장속에 영생합니다.》

생이란 사람들의 생명과 활동을 통털어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생이 값있고 보람차며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값있고 영원한 생은 동지를 위해 바치는 생입니다.

동지를 위해 바치는 생은 자기의 생명도 생활도 모두 동지를 위하여 아낌없이 바치는것입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한생은 동지들을 위해 바치신 가장 숭고한 한생이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싼다오만 넝즈잉(삼도만 능지영)에서 혁명활동을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적지 않은 견실한 혁명가들이 나쁜 놈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민생단》으로 몰려 감방에서 고생하고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민생단》이 아니고 혁명가들이라는것을 알면서도 감히 그들을 도와나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두둔했다가는 자기도 언제 《민생단》으로 몰려 잡혀들어갈지 몰랐기때문입니다.

목숨을 내대지 않고서는 그들을 구원해줄수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의 맨 앞장에 김정숙어머님께서 서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누구도 돌보려하지 않는 그들을 찾아가 음식도 대접하고 힘과 용기도 안겨주시며 여러모로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그것은 어머님께서 그들을 굳게 믿으셨기때문입니다.

어머님의 동지적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민생단》으로 몰려 갇혀있는 몸이지만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길 희망과 신심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점심죽을 끓이시는데 갑자기 적《토벌대》놈들이 근거지에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위급한 때에 펄펄 끓는 죽가마를 그대로 머리에 이고 적탄이 비발치는 산마루에 오르시였습니다.

적탄이 비발치는 위험속에서도 동지들의 식사를 걱정하시는 어머님의 동지적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였습니다.

적들이 쫓겨간 다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동지들에게 죽을 퍼주시였습니다.

죽그릇을 받아든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지들을 바라보시는 어머님의 마음은 더없이 기쁘시였습니다.

어머님의 그 기쁨과 행복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지를 위해 바치시였다는데로부터 느끼는 기쁨이고 행복이였습니다.

어머님의 한생은 말그대로 동지를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는데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며 살아오신 한생이였습니다.

그러기에 김정숙어머님의 동지에 대한 믿음과 지극한 정성, 무한한 희생성은 어머님께서 쌓으신 혁명업적과 함께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여있습니다.

동지를 위해 바치는 생은 가장 값있는 생입니다.

동지를 위해 바치는 생은 수령에 대한 참다운 혁명전사의 충실성의 표현입니다.

혁명동지는 수령을 높이 모시고 옹호보위하는 혁명전우이며 수령의 위업을 실현하는 투사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동지에 대한 사랑은 곧 수령을 받드는 마음으로 되며 이것은 자신이 죽더라도 동지들이 있으면 그 혁명위업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지를 위해 바치는 생은 가장 값높은 한생으로 됩니다.

동지를 위해 바치는 생은 또한 조직과 집단을 위해 바치는 가장 값높은 생입니다.

동지에 대한 사랑은 한 개인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조직과 집단은 동지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조직과 집단을 이루고 서로 생사고락을 같이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동지에 대한 사랑은 조직과 집단에 대한 사랑으로 되며 동지를 위해 바치는 생은 조직과 집단을 위해 바치는 가장 값높은 생으로 됩니다.

동지를 위한 생은 영원합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고흘러도 모든것을 혁명에 바친 사람들을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합니다.

오늘도 항일의 로투사들은 김정숙어머님의 동지적사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뜨겁게 회고하고있으며 회상실기에 담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높이 발휘하신 동지적사랑의 숭고한 모범은 후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그들을 참다운 혁명적동지애를 지닌 혁명가로 싸워나가게 합니다.

그러기에 동지를 위해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한생은 어머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함께 오늘도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지를 위해 바치는 생은 동지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고 후대들의 넋으로, 산모범으로 계승되는 영원한 생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진심은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길뿐아니라 남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칠줄 아는 사람에게서만 우러나온다.》

제27과. 신천땅의 피의 교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신천땅의 피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천은 우리 인민들과 학생소년들에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승냥이놈들과 계급적원쑤놈들이 저지른 귀축같은 만행을 통하여 치솟는 적개심과 피의 교훈을 새겨주는 력사의 땅입니다.

신천땅의 피의 교훈은 우선 미제침략자들에 대하여서는 자그마한 환상도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하며 미제와는 끝까지 싸워이겨야 한다

는것입니다.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디안들을 야수적으로 죽이고 그 시체더미우에 생겨난 국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의 한 작가도《미국은 피속에 솟아있고 피속에 잠겨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의 바다우에 솟아난 미제는 대대손손 우리 인민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워온 불구대천의 피맺힌 원쑤입니다.

그런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했던 일부 사람들은 미제의 이 승냥이본성을 잘 모르고 그들도 사람인데 전쟁을 해도 가만히 있는 우리야 설마 어찌겠는가고 생각하면서 미제에 대해 환상을 가졌던탓에 무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놈들이 오라고 할 때 도망칠 생각도 하지 않고 공손히 응하다가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죽었으며 지어 적들에게 자발적으로 찾아갔다가 애매하게 생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굶주린 승냥이마냥 덤벼드는 놈들을 보면서도 피하지 않고 제집에 그냥 앉아있다가 순한 양처럼 끌려가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겠는데 마지막 피값이라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신천땅에 기여든 미제침략군놈들과 졸개놈들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총을 든 놈들과 맞서싸우는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달라붙었더라면 아무리 늙은이나 녀자들이라고 하여도 얼마 안되는 원쑤놈들을 다 쓸어눕혔을것입니다.

그들이 다 달려들어 원쑤놈들을 이발로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끝까지 싸웠더라면 얼마든지 적들을 요정낼수 있었을것입니다.

더우기 미제침략군놈들이 신천땅에 기여들었을 때 쌀을 한짐씩지고 도끼나 허리에 차고 산에 올라가있어도 그렇듯 애매한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적들과 맞서싸우면 살고 굴복하면 죽습니다.

신천땅의 피의 교훈은 미제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신천땅의 피의 교훈은 또한 계급적원쑤놈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가지고 계급적원쑤들을 철저히 청산해버려야 한다는것입니다.

계급적원쑤라고 할 때에는 한 민족이면서도 우리와 사상과 뜻을 달리하는 반동분자들과 이미 청산된 착취계급들이 남겨놓은 놈들을 말합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신천땅에서 청산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반동분자들은 미국놈의 지휘밑에 《치안대》를 조직하고 복수적으로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였습니다.

당시 신천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중학교를 다니다가 출학당한 불량청년도 있었습니다.

이놈은 평상시 학습과 조직생활을 매우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학급동무들과 선생님들로부터 계속 비판만 받군 하였습니다.

회의때에는 참가하기 싫어 빠져서는 술집에만 다니고 담배질만 하였으며 남들을 때리며 싸움질하고 방탕한 생활만 일삼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미국놈들이 신천에 침입해들어오자 한달음에 달려나가 침략자들을 환영하고 떠받들면서 그놈들의 충실한 주구가 될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미국놈들의 충실한 앞잡이가 된 이놈은 미국놈들과 함께 신천군의 여기저기를 싸다니며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텔레비죤련속극《붉은 흙》에서도 볼수 있는바와 같이 계급적원쑤들은 병신이라고 하여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붉은 흙》에서 만수라는 놈은 배안에서부터 병신이기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사람값에도 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놈은 늘 자기의 계급적처지를 잊지 않고있다가 미국놈들이 쳐들어오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악랄하게 날뜁니다.

이놈은 해방전에는 머슴을 두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는데 공화국정권하에서는 호미를 쥐고 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지껄입니다.

만수놈의 이 말은 자기의 계급적처지를 한시도 잊지 않고있다는것과 자기 같은 머저리들도 《때》가 오면 옛 처지를 되찾기 위해 복수의 길에 나설것이라는 계급적원쑤놈들의 앙심품은 생각을 그대로 담은것입니다.

이렇듯 계급적원쑤들은 악착하고 자기들의 계급적본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계급적원쑤놈들은 남조선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내부에는 속에 칼을 품은 계급적원쑤들이 옛 제도를 꿈꾸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음으로양으로 책동하고있습니다.

놈들은 우리 공화국이 날을 따라 승승장구하는것을 배아파하면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장단에 맞춰 별의별 못된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자들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그놈들의 노예가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학생소년들은 신천땅에서 무고한 인민들이 계급적원쑤들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당한데 대하여 잊지 말고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증오심을 높이며 이런 놈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여야 합니다.

학생소년들은 신천땅의 피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야 하며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이 우리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신념이고 배짱이다.》

제28과. 동무를 위안할 때 지켜야 할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습과 생활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과정에는 누구를 위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위안이라는 말은 위로하여 안심시킨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로할 때 례절바르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상대에게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위로할 때 례절을 바로지켜야 합니다.

우선 병문안을 가서 위안을 례절있게 하여야 합니다.

병문안을 갈 때는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환자가 좋아하는 특색있는 음식을 간단히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위해서는 꽃을 가지고 가는것이 좋습니다.

꽃은 아름답고 향기로운것으로 활짝 핀것보다 망울진 송이가 많은것으로 고르는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것은 활짝 핀 꽃이 오래가지 못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망울진 송이는 꽃이 피여나면서 환자에게 소생의 기쁨과 함께 병을 이겨낼수 있는 신심을 주고 하나, 둘 펼쳐지는 꽃잎은 상쾌한 즐거움과 아늑한 정서, 명랑한 기쁨을 안겨줍니다.

환자호실에 들어서서는 조용히 환자의 침대에 가야 합니다.

침대에 가서는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편리한 장소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병문안을 갔을 때에는 《영수동무, 좀 어떻니? 늦어서 미안해.》라고 인사말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번 찾아가게 되였을 때는 《영수동무, 전번에 왔을 때보다 퍽 좋아졌어. 소식을 들으면 동무들이 기뻐할거야!》등으로 환자의 회복정도에 따라 신심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환자가 알고싶어하는 학교소식과 동무들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이 중한 경우에는 될수록 말을 적게 할뿐아니라 환자가

흥분할수 있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문안을 받은 환자는《이렇게 와주어 고마와.》,《정말 안됐어, 동무들에게 걱정을 끼쳐서…》등의 답례인사로 고마움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병문안할 때 환자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을 끌면서 환자에게 피곤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헤여질 때는 환자에게 몸조리를 잘하여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필요한 일이 있으면 아무때든지 알려달라는 성의있는 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원실을 나설 때에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하여야 하며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는 가족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위로의 말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여 다시 만나게 된 동무에게도 례절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나 적적했니. 자주 찾아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정말 반가와. 빨리 회복되여 기쁘구나.》등으로 건강이 회복된 동무에게 인사를 할수 있습니다.

인사를 받은 사람은 《고마와. 동무들이 모두 도와주어 이렇게 빨리 나았어.》 등의 답례인사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가집에 가서 위안을 례절있게 하여야 합니다.

상가집에서 지켜야 할 례절을 《상례》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활과정에 자기 동무의 집에서 누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동무를 위로해야 합니다.

이때 동무의 슬픔을 덜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례절을 바로지켜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가슴아프겠니?》

《할아버지가 편치 않으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가실줄 몰랐구나.》 하고 말하며 동무의 슬픔을 함께 나눌수 있습니다.

또《좋은 세월에 오래오래 사시겠다고 늘 이야기하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잘 믿어지지 않는구나.》

《할아버지는 우리가 오면 재미나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군 하셨는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하고 돌아가신분을 추억하는것으로서 동무를 위로할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례절은 동무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가깝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비판받은 동무에 대한 위안을 잘하여야 합니다.

비판을 받은 동무가 기분이 없어하면《비판을 받았다고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어. 모두 너를 위해서 비판한거란다.》 라고 위로의 말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판을 받은 동무가 집단과 동무들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느끼고 마음의 위안을 가질수 있습니다.

《경석동무, 동무의 결함을 놓고 나를 돌이켜보았어. 나에게도 동무와 같은 결함이 있어. 꼭 고치자.》라고 말하여 자기의 결함을 찾고 결의를 다지는것으로 동무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결함을 고칠 생각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학습에서 뒤떨어지고 조직의 분공을 제때에 수행하지 못한 동무에게는 《너무 걱정하지 말어. 결심을 가지고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 라고 신심을 안겨줄수도 있으며 《우리 함께 해보자! 내

힘자라는껏 적극 돕겠어. 동무들도 모두 너를 도와나설거야.》라고 말하여 비판받은 동무가 동무들과 집단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비판받은 동무가 결함이 있다고 하여 그를 따돌리거나 차게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판받은 동무는 결함을 고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비판에 반감을 가지게 하고 결함을 고칠수 없게 합니다.

그러므로 비판을 받은 동무일수록 더 관심을 돌리여 친근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판받은 동무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례절입니다.

또 비판을 받은 동무를 두둔하거나 비판에 대하여 의견을 가질수 있게 부추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은 동무를 놀려주는것과 같은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례절이 없는 표현입니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위안할줄 아는례절을 바로 지켜 자신을 례절밝은 사람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인정이 없는 사람은 향기없는 꽃이고 잎이 없는 나무나 다름없다.》

2. 사회주의법

제1과. 철도보호구역과 도로보호구역에서의 질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를 빨리 발전시켜 원료와 자재를 쌓아두고도 실어다주지 못하여 생산정상화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입니다.

철도는 사람의 피줄과 같이 온 나라에 뻗어있기때문에 나라의 동맥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건설에서 철도일이 잘되여야 다른 모든 일도 잘되기때문에 철도를 선행관이라고 합니다.

철도와 함께 도로도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위하여 복무합니다.

도로는 자동차와 뜨락또르가 사고없이 달릴수 있게 하고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로를 어떻게 거두는가 하는것은 나라의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징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라고 하는것입니다. 가로수와 꽃밭속으로 길게 뻗은 도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합니다.

렬차가 씽씽 제시간에 달리고 자동차, 뜨락또르가 줄을 지어 잘 달리게 하자면 철길과 도로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철도와 도로가 좋아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이 더 빨리 될수 있고 사람들간의 련계도 잘될수 있습니다.

국가는 철도와 도로가 차지하는 중요성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을 채택하고 모든 공민들이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철도와 도로를 잘 보호관리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철도보호구역과 도로보호구역에서 법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는것입니다.

철도와 도로를 따라 나라의 곳곳에 설정되여있는 보호구역에서 법이 정한 질서대로 행동하는 문제는 모든 공민들의 자각성에 의해서

만 해결될수 있습니다.

누구나 공민적자각과 의무를 지니고 철도와 도로를 사랑하고 보호할 때 우리 나라는 더 높이, 더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

철도보호구역과 도로보호구역에서 제정된 법규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것은 공민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철도보호구역에서 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철도보호구역은 철길뚝밑에서부터 2m이고 도랑이 있을 때에는 도랑바깥경사면에서 2m까지입니다.

철도보호구역에서는 철길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절대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철도보호구역안으로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철길옆으로 다니거나 차굴, 철다리로 다니면 사고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철길과 철다리, 차굴, 전주대, 철길표, 신호표식, 신호표를 비롯한 철도구조물을 손상시키거나 파손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도보호구역에서 밭을 일구거나 집짐승을 기르지 말아야 하며 철도와 관련이 없는 물길과 다님길을 내서는 안됩니다.

철길주변에서 폭파작업을 하여서는 안되며 철길뚝에 불을 놓거나 흙과 모래를 파지 말아야 합니다.

철길뚝에 있는 나무를 베거나 잔디를 뜨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로보호구역에서 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도로보호구역에서는 도로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로관리를 잘하여야 합니다.

분담된 도로구간을 계절적특성에 맞게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하며 분담된 도로구간에 나무와 잔디를 심고 꽃밭, 휴식터를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특히 봄과 가을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로력과 운수수단을 총동원하여 분담된 도로를 보수정비하여야 합니다.

도로보호구역에서 모래와 흙, 자갈을 파지 말아야 하며 나무를찍거나 잔디를 뜨지 말아야 합니다.

고속도로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포장도로에 흙을 묻혀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공민들은 도로관리원과 도로감독원의 요구대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철도보호구역과 도로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과 통제는 국토검열감독기관과 인민보안기관, 검찰, 재판기관이 합니다.

보호구역안의 시설물을 손상, 파괴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벌금을 물리며 차들은 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몰수합니다.

보호구역안에서 밭을 일구며 자갈, 모래, 흙을 파내는 경우에는 원상대로 복구시키거나 벌금을 물립니다.

철도시설물과 도로시설물을 훔치거나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로동교양처벌을 적용합니다.

가로수를 찍거나 잔디를 뜨며 철도보호구역으로 다니거나 차굴, 철다리로 다닐 때에는 벌금 또는 로동교양처벌을 적용합니다.

법을 위반한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로동교화형의 형사적책임을 지웁니다.

우리는 철도법과 도로교통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제2과. 철도려행질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철도를 사랑하며 려행을 할 때에는 제정된 철도규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철도려행질서를 철저히 지키는것은 철도의 안전성과 문화성,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며 전반적사회질서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렬차들이 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철도려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국가는 철도법과 려행질서에 관한 규정, 철도운수에 관한 규정, 손짐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모든 공민들이 려행질서를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철도역에서 정해진 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역기다림칸에서 쓸데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정해진 자리에서 책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차표를 먼저 사겠다고 줄도 서지 않고 앞에 끼우는 행동을 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기차를 타려 하거나 내려서는 반드시 역나들문으로만 다녀야 합니다.

남먼저 렬차에 오르겠다고 담장을 뛰여넘거나 렬차밑으로 다니지 말며 객차가 멎기도 전에 뛰여오르거나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렬차에 오르는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려행자들은 출장증명서와 공민증(시민증)을 반드시 가지고 렬차에 올라야 합니다. 6살부터 16살까지의 학생들은 출생증을 가지고 보호자와 함께 다닐수 있습니다.

철도려행자들은 반드시 차표를 사가지고 렬차에 올라야 합니다. 6살부터 16살까지의 학생들은 소년차표를 가지고 렬차에 올라야 합니다. 차표없이 렬차를 리용하는 현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철도려행자들은 손짐을 규정대로 갖추고 렬차에 올라야 합니다.

손짐규정을 지키는것은 자신뿐아니라 손님들에게 안전하고도 즐거운 려행을 보장하며 렬차를 애호관리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짐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커서 다루기 힘든것은 수화물로 부쳐야 합니다. 한개 질량이 20㎏을 넘는 짐, 렬차선반우에 올려놓을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부피가 큰 짐은 렬차에 가지고 오르지 말아야 합니다.

폭발물, 불이 쉽게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물건과 차안을 어지럽힐수 있는 물건, 짐승 그리고 역한 냄새가 나는것 등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물건을 가지고 오르지 말아야 합니다.

렬차안에서의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지정된 자리에서 책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영예군인, 애기어머니, 늙은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렬차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며 피우는 사람에게는 충고를 주거나 안내원에게 의견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렬차안의 비품을 깨끗이 다루어야 합니다.

렬차안에서 휴지를 비롯한 쓰다남은것을 여기저기 널어놓거나 밖에 던지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휴지통에 넣어야 합니다.

렬차가 달릴 때 승강대에 나가있거나 창문밖에 머리와 손을 내밀지 말아야 합니다.

의자에 신발을 벗고 앉아있거나 눕지 말아야 합니다.

려행자들은 기관차, 화물렬차, 수화물차, 우편차, 식당차, 난방차를 비롯하여 해당 성원외에 타지 못하게 되여있는 차를 타서는 안됩니다.

철도려행자들에 대한 단속과 통제는 인민보안기관과 철도일군이 합니다.

역구내에서와 렬차안에서 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우거나 차에서 내리웁니다.

려행증명서와 공민증(시민증, 출생증)이 없거나 보호자가 없는 학생이 올랐을 경우에는 현지에서 벌금을 물리거나 려객렬차에서 내리웁니다. 려행질서를 여러번 어기였을 경우에는 로동교양처벌을 적용합니다.

차표가 없거나 위조차표, 사용기간이 지난 차표, 지정된 역을 지난 차표를 가지고 려객렬차에 올랐거나 나들표없이 역구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해당한 벌금을 물립니다.

폭발물과 불이 쉽게 일어날수 있는 물건을 비롯하여 실어서는 안될 짐을 실었을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적용합니다.

해당한 성원외에 타지 못하게 되여있는 차에 탔을 경우에는 내리우거나 벌금을 물리며 태운 일군은 벌금 또는 로동교양처벌을 적용합니다.

우리 학생소년들은 철도려행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는데서도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제3과. 공원과 유원지리용질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공원과 유원지는 많은 사람들이 리용하는 문화휴식장소인것만큼 언제나 깨끗하고 알뜰하게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사랑에 의하여 누구나 즐거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공원과 유원지, 정원이 그 어디에나 다 꾸려져있습니다. 도시에는 공원과 유원지, 가로록지, 강하천수역록지가 꾸려져있고 농촌에도 공원과정원이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특성에 맞게 훌륭히 꾸려져있습니다. 공장에는 공장대로 공장정원이 있어 로동자들이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낼수 있고 집에 들어가면 집주변의 정원에서 휴식을 보다 흥겹게 할수 있게 되여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마련된 이 모든것은 참으로 귀중한 나라의 재부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는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문제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사는 고향마을,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잘 꾸리지 않고 되는대로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접이 들고 나중에는 사상적으로 변질될수 있습니다.

애국심은 조국강토에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고 가꾸며 자기가 사는 고향과 거리와 마을을 깨끗이 꾸리는데서부터 움트고 자라게 됩니다.

국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훌륭한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주며 그들이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 유원지관리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데서 모든 사람들이 공민적의무를 다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공원, 유원지관리규정은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공원화하여 우리 인민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법이기때문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공원, 유원지관리에는 공원, 유원지, 가로록지, 살림집주변, 공장, 기업소주변에 나무와 꽃, 잔디를 심고 체육, 오락시설들을 갖추

고 보호하는 사업이 속합니다.

공원, 유원지관리규정대로 공원과 유원지를 잘 꾸려야 합니다.

도시의 공원과 유원지는 우리 나라 자연풍경에 어울리고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꾸려야 합니다.

도시의 가로수로는 생활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며 모양이 곱고 사람의 건강에 좋은 나무들을 심어야 합니다.

도시살림집주변과 공장, 기업소의 주변에는 여러가지 나무와 꽃, 잔디를 심어야 합니다.

도시의 단층살림집주변에는 과일나무를 심고 꽃밭을 규모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농촌의 집집마다에는 다섯그루이상의 과일나무를 심으며 부락주변과 길가에는 과일나무를 비롯한 풍치에 어울리는 나무를 심어 농촌마을에 사철 꽃이 피고 백과주렁지게 하여야 합니다.

농촌에 있는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 상점주변에는 공원과 정원을 꾸려야 합니다.

휴양소, 료양소, 정양소에는 공원과 유원지를 꾸려야 합니다.

공원과 유원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원과 유원지에 갈 때에는 옷차림을 단정히 하며 작업복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공원과 유원지에 있는 나무와 꽃을 꺾거나 잔디를 밟지 말며 과일과 열매를 따지 말아야 합니다.

공원와 유원지에서 밭을 일구거나 불을 피우지 말며 오물을 망탕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공원과 유원지에서 사냥, 낚시질, 목욕, 배놀이를 망탕 하지 말고 음식물은 제정된 장소에서만 먹어야 하며 주변을 깨끗이 거두어야 합니다.

유희시설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의자와 오락시설을 되는대로 다루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원지안에 있는 문화유적을 잘 보호하여야 합니다.

공원, 유원지안에서 패싸움을 비롯한 불량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원림록지보호에 대한 단속과 통제는 도

시경영기관과 인민보안기관이 합니다.

동식물과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벌금을 물립니다.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패싸움을 하는것과 같은 불량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로동교양처벌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공원과 유원지관리규정을 잘 알고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제4과. 화재와 물에 빠지는 사고방지질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교통사고, 화재사고, 익사사고, 폭발물사고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건사고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사고는 혁명의 원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고가 있을수 없습니다.

사고를 철저히 막아야 인명피해를 막고 인민들이 땀흘려 마련해놓은 나라의 재부를 적극 보호할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사고를 미리막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을 채택하고 5월과 11월을 사고방지대책월간으로,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을 사고방지대책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화재사고를 미리막아야 합니다.

화재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산을 태워버리는 재난을 말합니다.

화재가 나면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땀흘려 마련해놓은 인민의 재산을 순식간에 불태워버립니다.

국가는 화재로 인한 위험한 사고를 미리막기 위하여 화재방지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으며 그것을 모든 공민들이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화재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적들의 간교한 책동으로 하여 일어나는것도 있고 사람들의 무책임성으로 하여 일어나는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적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적들은 중요한 국가재산에 불을 지르려고 교묘하게 책동하며 무질서한 틈을 타서 성냥이나 라이타, 지어 폭발물을 리용하고있습니다.

적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기회만 엿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중요한 국가기관, 군수공장, 량곡창고, 탈곡장, 정미소, 철도주변에서 수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체없이 인민보안기관이나 경비성원, 옆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요소를 미리 찾아내여 없애야 합니다.

소학교 학생들은 물론 중학교 학생들도 불심부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난로는 판자우에 놓지 말며 나무와 같은 불붙기 쉬운 물건을 난로가까이에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난로굴뚝은 곧추 내지 말며 난로에 불을 피웠을 때에는 방을 비우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라이타와 성냥을 가지고 다녀서는 안됩니다.

휘발유는 절대로 집에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석유곤로는 석유와 휘발유를 섞어서 쓰면 안됩니다.

창고, 량곡창고, 탈곡장, 정미소안에 성냥이나 라이타를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되며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어둡다고 하여 성냥이나 라이타로 불을 켜서는 안됩니다.

전기시설이 고장나면 아무 사람이나 손대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전공만이 고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기다리미를 비롯한 전기기구의 받치개는 불에 타지 않는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높은 촉수의 전등을 쓰지 말며 방을 비울 때와 잠잘 때에는 전등을 꺼야 합니다.

개페기의 휴즈선은 국가에서 만든것만을 쓰며 전열기, 전기포단 같은것을 자체로 만들어쓰지 말아야 합니다.

전기선은 같은 재질을 써야 하며 이음부분은 납땜하거나 절연테프로 감아야 합니다.

탄재와 나무재는 불이 다 죽은 다음에 지정된 곳에만 버려야 합니다.

모든 학교와 기관들에는 소화기, 갈구리, 바께쯔, 모래, 물탕크와 같은 불끄는 시설을 철저히 갖추어놓고 그 관리책임자를 정해놓아야 합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옆사람들과 인민보안기관, 소방대에 전화를 걸어 알려야 합니다.

화재요소에 대한 단속과 통제는 인민보안기관과 전력감독기관이 합니다.

화재요소를 없애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립니다.

기관, 기업소들에 불끄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 또는 책임있는 일군에게 로동교양처벌을 적용합니다.

화재를 일으켰을 때에는 엄중성정도에 따라 로동교양처벌 또는 로동교화형의 형사적책임을 적용합니다.

물에 빠지는 사고를 미리막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강과 호수가 많은 조건에서 강과 바다를 사랑하고 수영을 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요구를 어기고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를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물에 빠지는 사고는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물에 빠지는 사고는 강하천, 물길, 도랑, 저수지, 늪, 물웅뎅이, 우물 등의 위험개소들에서 일어납니다.

국가는 물에 빠지는 사고를 미리막기 위한 규정을 만들고 모든 공민들이 규정대로 지키고 생활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물에 빠지는 사고를 미리막기 위하여서는 모든 기관, 기업소에서 인민보안기관의 요구대로 위험개소들에 울타리를 치고 위험표식을 하며 물놀이터를 철저히 꾸려야 합니다. 유치원어린이들의 물놀이터깊이는 30㎝, 소학교 학생들의 물놀이터깊이는 60㎝, 중학교 학생들의 물놀이터깊이는 1～1.2ｍ, 어른들의 물놀이터깊이는 1.5～2ｍ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물에는 뚜껑을 만들어 씌우며 외나무다리, 돌다리, 줄다리는 제때에 수리하여야 합니다.

위험한 곳에서 목욕을 하거나 고기잡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목욕하지 말아야 하며 어린이를 데리고 강하천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목욕을 하기에 앞서 준비운동을 하고 온몸을 적

신 다음 구명기구를 갖추고 하여야 하며 경계표식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낯선 고장에서는 목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덥다고 하면서 강과 호수에서 목욕을 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목욕을 하는 경우에도 동무들의 머리를 누르거나 다리를 잡아당기는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이야나 쥬브를 타고 깊은 강을 건느거나 고기잡이를 해서는 안됩니다.

울타리를 쳤거나 위험표식을 한 곳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얼음이 얼기 시작할 때와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에 얼음우로 절대로 다니지 말며 얼음지치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물곁의 얼음우에서 썰매를 타거나 지치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 뜨락또르가 다니는 거리나 경사지와 같은 고개길에서 썰매를 타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물이 드나드는 강의 얼음우로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배타는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배가 완전히 멎은 다음에 오르거나 내려야 하며 배에 올라서 여기저기 다니거나 서있지 말아야 합니다.

물에 빠지는 사고를 미리막기 위한 사업에 대한 단속과 통제는 인민보안기관이 합니다.

물놀이터가 아닌 위험한 곳에서 목욕을 할 때에는 벌금을 물립니다.

얼음이 얼거나 녹기 시작할 때 얼음우로 다니거나 바다물이 드나드는 강의 얼음우로 다닐 때에는 벌금을 물립니다.

배사공의 요구와 뽀트장관리원의 요구를 듣지 않았을 때에는 배와 뽀트를 태우지 않거나 벌금을 물립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못본척 하고 지나가거나 건지려고 애쓰지 않은 자에게는 로동교양처벌 또는 로동교화형의 형벌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화재사고와 물에 빠지는 사고를 미리막기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제5과. 전기리용질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특히 기름, 전기, 석탄을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기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전기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전기리용질서를 철저히 지켜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그러면 왜 전기리용질서를 지켜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까?

우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이 멎은 사람은 활동이 모두 중지되는것과 마찬가지로 공장, 기업소는 전기가 없으면 제대로 움직일수 없습니다.

전기는 우리 나라의 동력구성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어디서나 요구하는것은 전기입니다. 그러므로 전기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전기를 원만히 대주어야 공장, 기업소들이 제대로 돌아가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전기를 절약하는것은 곧 전기를 그만큼 생산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기리용질서를 잘 지켜 1㎾의 전기라도 절약하면 그만큼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요구하는 전기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전기랑비현상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전기는 우리들의 가정들에서뿐아니라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다 씁니다. 전기리용질서를 지켜 전기를 아껴쓰면 그만큼 우리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 늘여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리용질서대로 전기를 아껴쓰지 않고 헛되이 쓰는 사람은 공민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곧 자기자신을 위한 사업이며

나라와 인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는 전기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요구되는 전기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전력법과 전력법시행규정세칙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전기리용질서를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방의 크기에 따라 알맞춤한 촉수의 전등을 켜야 하며 밝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방의 크기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촉수의 전등을 켜는것은 전기를 랑비할뿐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전등별로 스위치를 리용하며 불필요한 시간에는 반드시 전등을 끄는 습관을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물론하고 빈방에서 나올 때는 전등을 꺼야 합니다. 특히 낮전등을 켜놓는 일이 없도록 하며 잠잘 때에는 반드시 전등을 꺼야 합니다.

텔레비존과 랭동기, 전기다리미를 비롯한 전기기구를 쓰는데서 전기리용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전기다리미를 쓸 때에는 미리 다림질할것을 다 준비하여놓고 전원을 련결하여야 합니다. 전기다리미를 달구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것과 같은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빈 랭동기를 돌리지 말아야 하며 텔레비존을 보지 않으면서 켜놓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라지오와 고성기, 록음기도 듣지 않을 때에는 꺼야 합니다.

승인없이 전열을 난방에 리용하지 말아야 하며 전기곤로를 비법적으로 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전기곤로를 자체로 만들어 쓰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수도물을 아껴쓰며 난방관의 물을 뽑아쓰지 말아야 합니다.

수도꼭지를 항상 열어놓아 수도물을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난방관의 물을 뽑아 빨래를 하는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기리용에 대한 검열단속과 통제는 인민위원회와 전력감독기관이 합니다.

승인없이 낮에 전등을 켜거나 잠을 잘 때 전등을 켜고 자는 경우, 지나치게 높은 촉수의 전등을 켜는 경우, 승인없이 전열을 난방 또는 식사준비에 쓰는 경우와 승인없이 전기곤로를 쓰거나 자체로 전열

기를 만들어 쓰는 경우, 승인없이 전기온돌을 놓았을 경우와 수도물을 넘기거나 난방관의 물을 뽑아쓰는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로동교양처벌을 적용합니다.

등록된 크기보다 더 큰 전기기구를 썼을 경우에는 전기료금의 20배값으로 벌금을 물립니다.

전력적산계를 거치지 않고 전기를 쓰는 경우에는 30배의 값으로 벌금을 물립니다.

개별적주민세대에서 비법적으로 전열기를 썼을 때에는 벌금을 물리고 그 세대가 속한 인민반과 동에도 제재를 줍니다.

위법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로동교양처벌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전기리용질서를 철저히 지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도덕과 법(중학교 제2학년용)

2판

집 필 정혜숙, 최명순, 부교수 고수길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및 콤퓨터편성 김학연

장 정 김순영 교정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1판발행 주체94(2005)년 3월 21일

2판인쇄 주체101(2012)년 월 일 2판발행 주체101(2012)년 월 일

교-보-12- 부 값 원